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감사의 계절을 맞으며 감사의 최대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 물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실과 충성으로 감사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1월 22일 (토) 제 151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감사절 특집 : 발행인 칼럼

감사! 크리스천 삶의 최우선 순위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게 사느냐는 그 사람의 감사생활에 의하여 가름될 수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첫 번째 관계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다. 낳아 주시고, 먹여 주시고, 키워 주시고, 사람 되라 교육시켜 주시고 온갖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는 부모님께는 참으로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일 것이다. 요사이 스승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요사이는 그런 미풍양속은 찾아볼 수가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

며칠 전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을 다니러 왔다가 전에 자신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댁을 선물을 들고 찾아갔다. 그런데 신학교 교장까지 지낸 어른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수 십 년 교수 생활을 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하였건만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제자는 자네가 처음이네"라고 하였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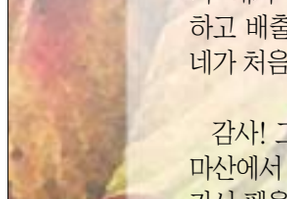
감사!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다. 몇 년 전 마산에서 창신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펜을 선물로 드리며 큰 절을 드렸다. 그 선생님 역시, "내가 고등학교 선생을 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찾아와 인사하는 제자는 자네뿐이네"라고 하며 감격해 하였다. 그 후 부산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선생님은 대학교수인 아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후 교수인 아들을 내게 소개시키면서 "아들아! 이 분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하며 인사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감사를 잊지 않고 찾아 뵌 것 때문에 분에 넘치는 찬사를 받고 몸 둘 바를 몰랐다.

그 다음으로 감사할 대상은 배우자일 것이다. 넓은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의 동반자로 고와 낙을 함께 하며 사는 배우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부부관계가 천생연분이 아닌 평생원수처럼 살아가는 정말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더 크고 진한 감사는 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께 육신을 입혀 말구유에 나게 하시고, 마침내 내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나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 감사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매일 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감사의 계절이 찾아왔다. 잊어버린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정하여 주셨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메마른 감사의 나무에 풍성한 감사가 영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자.

감사! 그것은 크리스천 삶의 최고 최선의 윤리이다.



2면 감사절 설교 — 장용호 목사(아이다호한인장로교회)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 정성구 박사(ICSK원장)

9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한... — 노봉린 박사

9면 시(詩)로 읽는 성경(聖經) — 김길홍 목사(시인/소설가)

감사하게 하소서

현태식 장로
로스펠리스연합감리교회

멀리 가까이 들리는
가을 잎새 고운 색 물감 옷 갈아입는 소리
한번쯤 생각해 볼
마음속 깊이 주신이 있는 사랑의 씨앗
잊고 모르고 사는 세상살이
하늘 길 모르는 사람
외로이 들길에 살 때
버려졌어도
하늘 길 찾아 그곳 바라보며
주신 섭리에 감사하게 하소서

풀섶 타는 내음 가을 길 메우고
싸늘한 바람 가슴에 닿을 때
사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누구나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작은 감사의 토막 서로 전하며
깊이 건사했던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 있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십자가의 고운 하늘의 마음
애써 모른다는 고집스러움
가을 길섶에 묻어 버리고
산머루 익어 떨어지는 산마루에서
힘든 하늘 길 순례자
초생 달 바라보며 잠을 청해도
하늘 길에 감사하며 잠들게 하소서

사랑과 감사, 은혜로 묶여지는
한 달 남은 가을철 마지막 달에
작은 사랑 작은 감사 서로 나누며
하늘나라 고운 꿈, 꾸게 하소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신, 구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 ·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시는 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 감당을 위해 불철주야 충성하시는 목회자 여러분에게 삼가 문안 인사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직 · 간접적인 계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계에서 닫아 두었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만방에 구원의 말씀을 알려야 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금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하여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삶을 영위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 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미나 일정 : 2014년 11월 3일~27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강사 :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담임)
회비 : 무료 (점심, 목회자료 제공)

일 시	장 소	연락처
11월 3일(월)	구례 호산나선교회 지리산가족호텔	한창영 목사 010-2018-0866
11월 4일(화)	전주 산돌교회	전중식 목사 010-6610-5305
11월 6일(목)	오창 오창나눔교회	김재헌 목사 010-8000-0172
11월 11일(화)	제주 이기풍기념관	김상종 목사 010-2772-0491
11월 13일(목)	진주 에덴교회	박창재 목사 010-3860-5631
11월 18일(화)	춘천 신성감리교회	박상칠 목사 010-6403-0691
11월 20일(목)	서울 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	쿰란출판사 02-747-1004
11월 24일(월)	부산 남산중앙교회	황형찬 목사 010-2988-1644
11월 27일(목)	광주 경찰청교회	윤세관 목사 062-223-1113

360면 | 13,000원 396면 | 13,000원 160면 | 8,000원 412면 | 14,000원 224면 | 9,000원 256면 | 12,000원 236면 | 12,000원 152면 | 10,000원

①②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약 편, 신약 편 ③ 칠십이레 ④ 지금 이 시대의 말씀
⑤ 다니엘 ⑥⑦ 꼭 읽어야 할 말씀 요한계시록 상,하 ⑧ 하나님의 구원계획 도표

강사 라흥채 목사

약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학사)(1962. 3-1968. 2)
- 미국 '테네코' 석유회사에서 13년간 근무(1972. 5)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1996. 6)
- 뉴욕으로 이주, 뉴욕만민제자교회 설립(1996. 9)
-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2012. 현재)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6 쿰란출판사

감사절 설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신 11:10-14)

장용호 목사
(아이다호한인장로교회)

감사절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Thanksgiving Day"이다. 공휴일로 지정되어 쉬는 날이며, 칠면조 고기를 가족과 함께 먹으며, 쇼핑시즌으로 유명한 Black Friday가 있어서 모든 상점이 세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시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감사절의 근원을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 가나안 일곱 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죄가 관영하는 곳이라 하는데 달리 말하면 죄가 꽉 차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힘을 자랑하고 교만으로 살고 있는 민족이 가나안 일곱 부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나라들과 견줄 수 있는 백성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백성의 수를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합니다. 홍해를 건너온 그 민족을 시내산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이스라엘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왕, 백성,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지켜야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의식법과 사회법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애굽의 나일강 하류의 땅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나일강 하류에서는 장마가 지나가면 늪지에다 씨를 던져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줄기를 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드러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흡수하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신 11:11).

약속의 땅 가나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신11:13-15).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으며 광물질이 풍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풍족하여질 수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흡수하는 땅에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입니다. 즉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 이 젖과 꿀을 얻으며 장구한 날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주시는 땅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니라"(신11:12)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합니다. 가나안 땅을 돌보시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가축과 심지어는 땅에 심겨진 씨앗까지도 살피시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수확할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케 하기 위하여 감사절을 정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신16:15-17).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일 년에 세 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힘대로 드려야 합니다. 절기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과일 열매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 졌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일 년에 세 번이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방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산은 해발 900m가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방나라들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지이요, 이방나라로 둘러싸인 땅을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겔5:5).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므로 인하여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을 둘러있는 이방나라에 보여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충만케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절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비가 내려도 흡수하는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감사절 절기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하는 찬양을 받으시려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들을 충만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1:22-23).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을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면 충만케 하시는 복이 당연히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아버지가 거하시는 교회에 충만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201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교회들마다, 신자들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열매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감사의 크기가 갈라집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 불행입니다.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모범을 보이신 길을 따라야 하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법칙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8)라는 말씀은 심은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씨를 심었으며 얼마만큼 심었는가에 대한 결과가 추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의 기쁨은 많이 심고 많이 거둔 자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맺는 말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기쁨과 감사를 즐길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자들입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산 자들이요, 주님을 머리로 하여 순종하며 충성한 자들입니다. 진실한 신자라면 세상 사람이 즐기는 방법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감사절 절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 영광을 받기 위함이요,
2. 택한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요,
3.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4. 내년에 수확할 열매를 생각하며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안에 있는 자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며,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뿌릴 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씨앗을 뿌려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기쁨입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시리아, 크리스천 없는 2014년 성탄절 맞을지도

CT, 중동 극단이슬람주의 창궐로 기독교 종말예측에 대한 필립 젠킨스의 반론 제기(2)

중동의 크리스천들 수세기 동안 '예배' '수도원'으로 신앙지켜
핍박 피해 옮길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 믿음 있어

'크리스천이 사라져버린 중동'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이 지역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난 재앙들의 규모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중동 밖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오는 성탄절, 시리아의 도시들은 1900여년 만에 처음으로 크리스천이 없는 성탄절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당에 성탄절 시즌만 되면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쟁(war on Christmas)'라는 특정 종교 편향적인 인사(Merry Christmas) 대신에 'Happy Holidays'라는 중립적인 인사를 쓰자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둘러싼 말싸움이 기승을 부리니 낯간지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리아에서는 진짜 크리스마스 전쟁이 벌어질 판에 말이다.

더 넓게 보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가 장기간에 걸쳐 걸어온 경로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한 그 답을 찾게 해준다. 어떻게 교회들이 사라지는가?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교회들이 어떻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는가?

강력한 교훈 하나는 이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비상한 외부 개입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회는 교인들이 나이 들기 때문에, 목사들의 스캔들 때문에,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빈약하기 때문에, 또는 교회의 신학이 엉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교회를 죽이려고 작심하고 덤비는 대적의 공격이 용의주도하고 효과적일 때, 교회는 사라진다.

교회의 대적은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파괴적인 대적은 막강한 종교적 신조를 강조할 수도 있다. 이 사례를 우리는 지금 이라크의 극단적 이슬람주의에서 볼 수 있다. 교회를 죽이려는 더 일반적인 대적은, 국가를 찬양하고,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국가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어떤 그룹도 정죄하는 극단적 세속 신학으로 정신무장한 박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소비에트와 중국 공산주의의 본모습을 결정짓는 태도였다. 마찬가지로,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자행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신앙보다는 극악무도한 민족주의 때문에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아시리아인과 칼데아인의 선조인 동방교회는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극심한 위기를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14세기에 동방교회가 맞은 재난들은 한때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있던 이 교회를 극히 작은 공동체로 축소시켰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이라크와 시리아, 아나톨리아에서 700년을 이어져 내려왔다. 20세기에 이르러, 강경한 무슬림 법학자들과 선동자들은 이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위한 새로운 조롱거리들을 앞 다퉈 창안해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을, 크리스천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그리고 크리스천이 탈 수 있는 말을 제한했다. 최악의 박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산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누더기를 걸쳤다. 재산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혹했던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것은 소리의 세계를 상실한 것이었다. 무슬림이 통치하는 땅에서 공적 소리를 인정받은 유일한 종교는 이슬람 뿐이었다. 모스크의 첨탑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하러 오라'는 무에진(muezzin)의 외침만이 공중의 소리를 장악하고 있었다. 교회가 종을 울리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됐다. 기독교와 무슬림 사회 사이의 가장 엄격한 구별을 알리는 소리가 그야말로 공중에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수 세기를 견뎌냈다. 자신들에게 부가된 제한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갔다. 가혹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그들은 부차적인 것들은 옆으로 제쳐두고 결코 버릴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을 지켜내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종과 피리('필수적인 것이 아닌 부가적인 것'이라는 관용적 의미가 있다)를 포기했다. 동방교회의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들의 영적 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예배를 지켜낼 수는 있었다.

예배만큼 중요하게 지켜낸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들은 영적 전사들이 기도와 말씀 연구를 하는 수도원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수도사들이 기도를 하고 사제들이 성례를 집전하는 한, 교회는 손상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은, 이론적으로는 심판 날까지 계속될 수 있었다. 살아남은 수도원들은 오지에 높은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요새들은 난공불락이었다. 이집트의 세인트 안토니 수도원과 시나이 반도의 세인트 캐더린 수도원 같은 그런 전설적인 기도의 요새들은 지금도 남아 있다.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라크 크리스천들은 마르 마타이Mar Mattai(성 마태)와 라반 호르미즈드(Rabban Hormizd) 수도원 주변에 모여 살았다. 이 두 수도원은 후기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방교회 일부 크리스천들은 강력한 서방교회들이 자신들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지만 외국의 크리스천들은, 특히 개신교인들은 이 지역 교회의 종교적 관습들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형식들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더 좋은 않았던 것은 서방교회는 이 지역 민족주의자들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신앙이나 교파를 불문하고 자치를 약속하는 세속 민족주의 정파들을 지지하고 싶은 유혹도 못지않게 위험했다. 지역 교회들이 의심쩍은 정권-가장 악명 높은 사례가 이라크나 시리아의 바트주의(Ba'athist) 정권이다-과 뒤엉켰을 때처럼 그런 동맹은 언제나 덫과 같은 것이었다. 동방교회는 이런 동맹 정책 덕분에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직접적인 탄압의 위협은 제거할 수 있었다.

동방교회는 새로운 군대가 뿌리를 뽑아내고 줄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근대까지 끈질기게 계속됐다. 신자들은 집단학살 당했고, 생존자들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나라를 떠났다. 이 시점이 돼어서야 비로소 그 교회들은 기능을 멈추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아르메니아 교회에 일어난 일이며, 지난 20년 내내 이라크의 시리아 크리스천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중세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유럽 크리스천들이 야만족의 침입을 피해 도망쳤을 때, 그들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돼준 것은 이웃의 수도원들이었다. 지난여름 북부 이라크의 크리스천들이 이슬람국가로부터 피신하면서 이와 똑같은 경로를 밟았다.

모술의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 남은 사람들은 유서 깊은 마르 마타이 수도원의 마당을 피난처로 삼았다.

〈7면으로 계속〉

시론

사슴나무골에서(11): 순교적 삶과 죽음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한 달쯤 전 병원 채플린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총에 맞고 응급실로 실려 온 한 경찰관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날 무려 세 명의 경관이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자동차 절도범으로부터 총을 맞고 그 중 두 명이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트라우마 얼러트(긴급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 5분 전에 병원 전체에 관련 스태프들이 응급환자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방송으로 알리는 것)가 반복되고, 저는 혼자 채플린실에 있다가 응급실로 곧 달려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경찰관 한 명과 팔에 총을 맞고 지혈 조치만 받은 다른 경관 한명이 앰블런스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50여명 가까운 의료진이 달라붙어 Intubation(기도삽관) 및 CPR(심폐소생술)을 하며 심장 박동과 호흡 유지를 위해 30분 가까이 최선을 다했지만, 가슴에 총을 맞은 경찰관은 끝내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로 아내와 네 자녀가 있는 성실한 경찰인 것으로 알려지며, 그토록 잔인하게 살인을 자행한 범인을 체포하는 일로 새크라멘토 카운티와 플레이서 카운티 사건 지역 일대는 모든 학교도 문을 닫고 통행하는 차량도 검문을 하면서 긴장이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운명한 경관의 부인과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하면서 병원의 모든 스태프들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배려하며 슬픔을 달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며 기도한 원목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왔고 저는 가족들에게 그 마지막 모습을 설명하면서 함께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위로도 위로일 수 없었고, 그냥 그 분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자녀들에게 일일이 입을 맞추며 주말에 가족 피크닉을 가기로 한 아빠와 남편을 이렇게 허무하게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흐느끼는 부인을 위해 위로와 평강을 비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날 순직한 경관의 아버지도 26년 전 남가주에서 같은 날 순직했다고해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남편을 26년 전에 잃고 또 다시 아들을 같은 날 잃은 순직 경관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카운티 경찰서의 채플린(경목)도 와서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수없이 많은 동료 경관들을 떠나보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동료를 보내는 아픔도 크지만 남편과 아버지를 졸지에 잃은 미망인과 유가족들을 지켜보는 일은 더 큰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인들을 쫓다가 죽고, 군인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죽습니다. 농부는 농사일이 천직인줄 알고 밭에서 일생을 일하다 죽습니다. 배우들은 무대에서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해야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목회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경관이나 모든 군인들이 시민과 국가를 위해 영광스러운 순직을 할 수는 없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주의 종들이 순교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단에서 혼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다 죽거나, 선교지에서 이교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죽는 순교는 모든 설교자와 선교사들의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산골이나 낙도에서, 변두리 상가 지하실 구석이나 한인도 얼마 안되는 중소도시의 이민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들의 인생이 오히려 더 힘든 순교적 삶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정말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과연 준비가 되어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언제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떠나야만 할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을 수 있을 지 오늘도 다시 스스로 물어봅니다.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1월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항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겸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효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월
3일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월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품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7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아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월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LA 평화교회(김은목목사)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의준목사)

9월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중앙교회(이충일목사)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제목사)
24일 블레싱 샘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8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0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클 블레싱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연수원 강의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2월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밤(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미주 갈멜산기도원 매일 기도성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새벽이슬 같은 은혜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급에서 해방된 뒤에 약속의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 가나안 땅에서 수확하면 제일 먼저 첫 수확물(맏물)을 하나님께 꼭 예물로 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면서 중요한 것을 지적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다. 모세는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준다. 5절을 보면 유리(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급에 내려간 야곱이 홀로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리마인드(Remind) 시켜준다. 그리고 7절에는 저들이 당하던 그 역경을 고통과 신고와 압제라는 세 단어로 설명한다.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육체의 중노동으로 인한 신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압제당하는 사회적 고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구출해주셔서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리마인드시키면서 "그러니 그런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사용한 이 세 단어는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고통,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들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 사회적 고통을 당하며 사는 우리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인도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기야 받은 은혜를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좌우명(座右銘)'이라고 쓰는 말은 중국 후한시대 최원이라는 학자가 처음 썼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후에 자기 형을 살해한 자를 직접 처단했다가 그만 붙잡혀서 옥에 갇히는 등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서예가로도 유명하기도 한 그는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 속에서 좌우명을 하나 남겼는데 그 좌우명은 이렇다. 남에게 베푼 건 기억하지 말고(施人愼勿念) 받은 은혜는 잊지 마라(受施愼勿忘)이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머리칼을 잡아 끄집어내 살려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다고 메달을 달아주며 칭찬하는데 정작 살아난 사람은 그때 머리칼이 아파서 혼났다고 두고두고 원망하더란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대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으면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 첫대목으로 삼았겠는가?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른다는 말은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교만하게 우쭐대는 사람을 보고하는 말이다. 자신의 과거 받은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올챙이가 되기 때문이다. 받은 은혜는 잊지 않아야 계속 개구리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27:28절에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기 원하노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새벽에 나아가 하늘의 이슬을 맞아보셨는가? 비가 올 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꺼번에 옷을 다 적시지 않아서 이슬을 맞을 때는 이슬을 맞는지 조차 모른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온 몸을 적셔 놓은 것을 보고 알게 된다. 하나님은혜는 하늘의 이슬과 같아서 우리는 내 삶을 적시는 줄도 모르고 은혜를 받으며 살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흠뻑 적시는 것이다. 이런 새벽이슬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소나기 같은 축복만이 아니고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 은혜도 흠뻑 젖을 만큼 많이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만 잊어버리고 만다.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해서 뒤를 돌아보아야만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음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새벽이슬 같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는 언제나 그 생각의 거점이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행복감에 젖어 산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별히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 은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알카에다, 시리아에 '이슬람국가' 수립 착수!

중동 전문연구기관들, IS-알카에다 관계 분석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력 세력인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가 서로 경쟁을 벌이며 세력 확장에 나섰다. IS는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으로 출발했으나, 올해 초 IS가 알카에다의 지도자 알 자와히리가 IS 측에 내린 이라크 내의 활동 자제 명령을 무시했다. 이후 두 단체는 결별을 하게 됐다.

IS는 근거지인 이라크 북부에서 그리고 중동 전 지역에 퍼진 알카에다는 더 많은 추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경쟁 국면에 들어섰으며, 이들 간의 세력 다툼이 점점 더 IS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라크 북부에서 벗어나 시리아까지 IS가 영역을 넓히면서, 중동 극단 이슬람주의의 선봉이자 리더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리아의 주요 반군이자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이 수니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국가'(IS)처럼 시리아 북부에 이슬람 국가수립에 나섰다. 바로 중동에서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Al-Qaeda Announces an Islamic State in Syria).

미군 철수한 이라크에 하부조직 IS, 알카에다와 결별 급상
IS 견제 위해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국가' 수립 본격 가동

중동 전문매체인 알모니터는 14일, 알누스라 전선이 최근 '온건 반군'들을 격퇴한 이들리브 주에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통치하는 국가를 세워 IS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알모니터는 알누스라가 이들리브를 선택한 이유는 터키 국경과 가까워 외국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영입이 쉽고 IS와 정부군이 형성한 전선에서 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알누스라는 남부의 이스라엘과 접경한 지역도 장악하고 있다.

알누스라는 IS가 지난 6월 이슬람국가를 세웠다고 선포한 이후 세계 각국의 지하디스트가 IS로 집결하고 자체 조직원들도 탈퇴하고 IS에 가담하자 국가 건설을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됐다.

애초 알누스라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세속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국가를 세운다는 목적으로 반군으로 활동했으나 정권을 전복시키기 전까지는 이슬람식 통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S가 국가를 선포한 이후 조직원들이 동요하자 '아부 무함마드 알골라니'란 가명으로만 알려진 알누스라 지도자는 지난 7월 육성 메시지를 통해 이슬람국가 건설을 약속했다.

알모니터는 알누스라의 국가 수립은 부패한 반군을 처벌해 대중적 지지를 얻고서 점령지역을 늘린 IS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알누스라는 최근까지 주민의 지지를 얻고자 점령지역에서 엄격한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유시리아군(FSA) 등 온건 반군과 협력해 정부군은 물론 IS와 싸워왔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9월 알카에다 분파인 호라산그룹을 공습한 이후 알누스라는 총구의 방향을 반대로 돌렸다. 미국은 두 세력이 별개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같은 조직이라는 분석도 많다.

알누스라는 지난달 26일 이들리브 외곽 바라 마을에서 자말 마루프가 이끄는 '시리아혁명전선'(SRF)과 교전을 시작으로 온건 반군과 전선을 본격적으로 형성했다.

알모니터는 마루프가 '디젤 검문소'를 세워 통행세를 거뒀다는 비난은 알누스라가 SRF를 공격할 명분을 줬으며, 이런 나쁜 평판은 알누스라가 인기를 얻는데 도움이 됐고 온건 반군을 '미국의 부역자'로 지목해 전선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IS도 지난해 시리아 북부에서 '북부기사연대'란 반군이 부패한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이들을 공격하고 선 전선을 다른 반군들로 확대하면서 점령지역을 넓힌 바 있다.

SRF 관계자는 알모니터에 SRF와 다른 온건 반군인 '하라카트하즘'은 모두 이들리브에서 철수했다며 이들리브에는 알누스라만 있다고 말했다.

FSA와 연대한 하라카트하즘은 알누스라와 작은 충돌만 빚었으나 본부에서 철수하면서 외국이 지원한 중화기를 대거 빼앗기는 중대한 손해를 보고 북부 최대 도시인 알레포로 후퇴했다.

알모니터는 알누스라와 FSA 간 충돌도 알레포 북부에서 이미 시작됐으며 곧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알모니터는 알누스라가 이들리브에서 상당한 지역을 장악하고서 자체 법원을 설립함에 따라 이슬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가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리브 외곽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이슬람주의자로 알려진 '이슬람전선'이 버티고 있어 알누스라의 계획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모니터는 덧붙였다.

알모니터는 이들리브에서 SRF는 궤멸했고 하라카트하즘은 양측이 언제라도 충돌할 수 있는 알레포로 후퇴했으며, FSA는 북부에서 정부군에 패퇴했기 때문에 미국이 IS 격퇴를 위한 지상전에서 온건 반군을 지원한다는 전략의 선택지는 줄었다고 지적했다.

알골라니는 SRF를 물리쳤을 당시 성명을 내고 미국이 주도한 국제 동맹국이 '미국의 스파이'와 함께 시리아에서 이슬람 세력과 서방 정책을 따르지 않는 그룹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SRF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골라니는 또 알누스라 지도부의 70%가 외국인이었는데 IS와 충돌하고 나서 40%로 줄었다며 "우리는 항상 외국인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 태생의 교사 출신으로 알려진 알골라니는 IS의 지도자인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와 함께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하다 알바그다디의 지원으로 시리아로 돌아가 알누스라를 조직했으나 알바그다디와 대립했다.

알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알바그다디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이끄는 ISI(이라크 이슬람국가)와 알누스라를 통합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됐다고 발표했으나 알골라니는 반대했다.

이에 알카에다 최고 지도자인 아이만 알자와히리는 지난해 6월 양측에 보낸 서한에서 통합을 취소했으며 5개월 뒤 알누스라만 알카에다 지부로 인정한다고 밝혀 IS와 알카에다가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멤피스 연합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중
   본 교단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 목사
2. 목회경험 3년 이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

제출서류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성장 과정, 신앙 여정 및 목회 경험에 대한 세부내용)
3. 목회 계획서(비전 및 목회 방침 계획)
4. 설교 CD또는 DVD 2개
5. 목사 안수증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6. 추천서 1통

서류 제출방법

1. 제출 마감: 2014년 12월 13일
2. 서류 제출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United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청빙위원장
   4777 S. Germantown Rd.
   Memphis TN 38141
3. 문의: 청빙위원장(나병옥 장로)
   전화: 901-219-6541
   Email: paulna1214@gmail.com

www.ukpcmemphis.org

멤피스연합장로교회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왕따(bullying), 집단 따돌림의 세상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온 세계가 왕따(bullying) 문제로 들끓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는 왕따의 세계이다. 왕따는 집단따돌림을 표현하는 한국의 신조어다. 최근의 학교의 총기사건들도 왕따 당하던 학생의 역반응으로 나타나 또 한번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다. 많은 연구들은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왕따와 관계된다고 보고한다. 왕따를 경험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

한국의 왕따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사회이슈가 되었다. 한국의 왕따는 그 정도가 극심하기로 유명하다. 미국사회도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는 2012년도 오바마 대통령과 미쉘 영부인이 직접 '왕따 방지 컨퍼런스(Bullying Prevention Conference)'를 백악관에서 개최할 정도이다.

왕따는 집단 내에서 다수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집단 따돌림은 범죄 행위이다.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서는 집단따돌림bullying을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왕따 시키는 것은 더욱 더 심각하다.

왕따에 대한 지금의 조사발표를 보면 놀라운데 사실은 조사발표 숫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2010년 REL-NEI the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of Northeast and Islands 에 의하면 학교의 왕따 시키는 사건들 중에서 40퍼센트는 보고되지 않는다고 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 CareerBuilders.com 조사에 의하면 직장의 왕따 50%가 보고되지 않는다. 2013년의 NBC뉴스 조사에 의하면 노인계층을 향한 집단따돌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10명중의 1명은 신체적 학대를 당한다고 한다. 미국의 십대 중의 6명 중에 1명은 자살을 고려하고, 12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시도한다. 가장 큰 이유는 왕따 때문이다.

왕따는 한 집단 내에서 그들이 만든 기준에서 벗어나는 언행을 하는 구성원을 벌주기 위한 의도적 행동, 특정인을 따돌리는 행동을 주도하는 구성원들의 압력에 동조하여 같이 괴롭히는 행동 등을 말한다. 피해자는 심리적인 압박, 육체적인 피해,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거나 과격한 범죄를 행하기도 한다.

미국은 10대 중후반의 연령인 고등학생들 사이에도 왕따로 인한 교내 폭력의 피해 학생이 전국적으로 매월 28만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집계하고 있다. 왕따는 최악의 경우 저 연령층의 피해 학생들의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다. 왕따가 미국에서도 전국적인 문제로 부상하자 조지아 주를 비롯한 미국의 49개주에서 주법으로 왕따에 대해 학교당국이 예방과 방지 계획을 세울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부형들에게 주기적으로 왕따 관련 교육 통지문을 발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면 더 심해진다. 한국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협회에 따르면 직장 왕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히는 개인의 정서, 성격, 조직내 갈등, 직무 스트레스 문제의 상담은 2011년 전체 상담 중 60.4%를 차지했다. 2012년 1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975명을 설문한 결과 45%는 '직장에 왕따가 있다'라고 답했고 58.3%는 '왕따 문제로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답해 직장 왕따가 학교폭력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로 나타났다.

왕따 시킴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생기는 문제다. 가족에서도, 직장에서도,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유사한 일들은 일어난다. 그렇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2011년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Study에 의하면 남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왕따 시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신의 여성 상대를 성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4배가 많다고 한다. 또한 학교시절의 왕따 시키는 사람은 나이가 24세가 되기까지 그 중의 60%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집단따돌림을 하는가? 개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1)정체감 확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절감 때문이다. 특별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가치 있는 타인'들인 교사나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단 하나 밖에 없다. 공부이다. 공부를 잘하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비정상적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공부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20-30%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모순된 구조이다. 2)개인심리학적으로 볼 때 '공격자와 동일시'이다. 3)또한 불안 해소를 위한 행동가담을 통해서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집단 심리학적인 면에서 보면 1)이질적인 것을 거부하는 심리이다. 친구를 따돌리는 아이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같이 몰려다닌다. 같은 학용품을 갖고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 문제는 자기와 같으면 좋고 다르면 나쁘다는 생각이다. 2)동조 행동심리가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비교이다. 심리학적 연구는 동조자가 1명일 때는 동조하지 않는다. 2-4명이면 급격히 증가하고, 7명이 되면 동조 행동이 극대화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주관이 확실할수록 다른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같이하면 왕따 현상을 집단화 가속화 시킨다.

성경은 왕따를 죄라고 말한다(미 6:8). 왕따는 인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반대되는 적대(hostility)이다. 왕따는 잠언 6:16-19의 죄의 특징과 부합된다. 성경에는 왕따에 대한 교훈이 많다. 구약의 출애굽기 1장에서 무죄한 히브리 노예들을 죽이는 애굽의 바로왕, 혹은 신약에서는 세례요한 죽인 헤로디아 등 수많은 인물들이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해결은 있는가? 왕따를 방지하거나, 왕따 당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건강한 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에 나오는 왕따 극복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요셉이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의하여 집단따돌림을 당한다.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아닌 자기보다 힘세고 강한 형들이 가장 어린 동생인 요셉을 왕따를 시킨다. 심지어는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까지 한다. 그러나 요셉은 왕따 당함 속에서 잘 견디어 낸다. 그리고 계속되는 차별과 공격을 극복한다.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로,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요셉은 확실한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 비록 형제들은 시기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버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자신과 믿음을 지켰다.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였다. 형통함이 보여지는 생활이었다. 요셉은 사회적인 지위가 문제가 아니었다. 온 세상이 왕따 시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감당한 것이다.

둘째로, 자녀들이 부모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른 자신감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지만 부모의 사랑은 확실했다. 심리 전문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집단따돌림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실제로 부모에게 따뜻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자존감이나 자기개념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대상들이,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신에 대하여 갖는 태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은 고난과 억울함의 세월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의지했다.

집단 따돌림의 문제는 너무도 치명적이고 아픈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강력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왕따의 문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저희 교회에서는 몇 주 후에 특별 치유집회가 열리는데 담임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과거 사도들에 의해 수많은 병자들이 기도로 고침 받는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오늘도 목회자들에게 치유사역이 성서적으로 타당하며 가능한 일인가요?
-토랜스에서 어느 부목사

A: 치유가 목회자의 사역에서 일어나려면 먼저 오늘날도 역사하는 치유의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3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믿음, 찬송하는 믿음, 병을 고치는 믿음을 말하면서 병을 고치려면 치유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치유하는 믿

병든 자를 위한 치유기도는 목회사역의 한 부분

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약5:16).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약5:15)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사역은 어떤 신학자들의 말처럼 과연 초대교회 사도시대 이후로 다 사라졌는가?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그 사역이 부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교회 공의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병 고치는 권능의 행사를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가 이 말을 한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시대 말기로서 사도들이 한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떠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도들에게 그 치유의 권능과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지교회의 목회자인 교회의 장로(목회자)들에게 병 고치는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에 말하는 이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 사도들에게 계승되고 그 후로는 교회의 목회자와 믿는 자들에게 치유기도사역이 계승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회자들은 병든 자가 있을 때 담대하게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잘 낫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병든 자를 위한 치유사역을 계속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근육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을 꾸준하게 운동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목회자도 믿음으로 치유기도를 자꾸 하면 치유의 근육이 생깁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 실패해도 계속 기도하면 치유의 기름부음이 그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많은 병자가 낫게 될 것이며 폭발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담임목사 청빙

베이지역 오클랜드 남부에 위치한
말씀의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지원 하실 분의 자격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구사하시는 40대 초반의 목사님으로서 약간의 목회경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기간
2014년 11월 30일까지

지원 서류 보내 실 곳 및 지원 방법
E-Mail(camry2004@hanmail.net)

보내실 서류
설교 동영상 2-3편, 프로필
(출신 학교와 사역 경험에 대한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족관계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고백 등), 추천서(우편으로)

후보자가 3-4명 정도로 선발 되면 학위증 사본과 교단 소속 증명서를 제출 합니다(hard copy, 우편으로)

말씀의 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7850 Edgewater Dr. Oakland CA 94621

giveroflife.org

THE LORD'S CHURCH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청빙

North Carolina 그린스보로 주님의교회는 2012년 6월에 개척한 교회로서 현재 황성철 임시담임목사님께서 섬기시며, 약 장년 35명, 어린이/청소년/대학생 16명이 정기출석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 The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ARP) 교단에 가입한 교회입니다. 저희 주님의교회는 하나님 한 분 만의 영적권위를 인정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이 살아있는 예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로, 이민 1세와 2세가 함께 이 미국 땅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지켜가고자, 아래와 같이 제2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자 격
1. 정규 신학대학 Th.M 혹은 M.Div 학위 이상 소지한 분
2. ARP 교단에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담임, 부목사 혹은 선교사로 3년이상 경험 있는 분
4. 미국 시민권/영주권 소지자 혹은 영주권 신청 가능한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신앙고백/목회철학/목회비전 등을 포함)
3. 최근 6개월 이내 음성설교 (CD or audio file)

◀ 제출마감
1. 마감일은 없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서류심사를 시작합니다.
2. 서류는 Email로만 접수합니다. gsolordchurch@gmail.com
3. 전화문의: 박의현 청빙위원장 (336-254-9350)
4.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임된 분에 한해서만 개별통지 합니다.

주님의 교회
LCGG Location: 4900 West Wendover Avenue | Jamestown, NC 27282 | Inside of Life Community Church
● (336) 995-7651 ● gsolordchurch@gmail.com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복음을 싣고 나갑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반타와라이(The Bantawa Rai of Nepal)

네팔의 이 조그마한 독립왕국은 인도와 티벳 사이의 히말라야 남쪽 경사면을 따라 위치해 있다. 이곳은 대략 110여 종족의 고향으로 각기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나라는 원래 농업국이며, 대부분 농사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발전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반타와라이는 동 네팔에서 가장 큰 종족인 "라이"로 알려진 사람들의 집합체에 속해있다. 라이 그룹의 각 종족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또한 고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는 고유 언어에서부터 지방언어의 혼합까지 변형해왔다. 그들의 얼굴 형태는 몽고인을 닮았지만 자신들은 몽골과는 아무런 혈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신들인 마레마(marema), 마하데바(mahadeva), 니나(nina-지구의 딸)의 후손들이라고 믿고 있다.

삶의 모습

반타와라이는 원래 농사를 짓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술적인 지식이 불충분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지는 못한다. 저지대에서는 쌀농사를 짓고, 고지대에서는 감자, 옥수수, 밀, 보리를 기른다. 여자들이 씨를 뿌리는 동안 남자들은 밭을 갈며, 가족들은 수확기에는 자주 단결에서 서로를 돕는다.

거주지는 전형적으로 초가지붕을 가진 돌이나 나무로 된 집에서 산다. 집들은 보통 주변에 나무로 된 현관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라이인들은 매우 용감하고 친근하고 겁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종종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고위급 군인일수록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된다.

라이인들 사이에 있어서 결혼은 매우 큰 축제 의식이다. 어떤 결혼은 콩피(kongpi)라고 하는 결혼의 세부적인 것들을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간소해진다. 선물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그 선물을 받게 되면 결혼날짜가 잡혀지게 된다. 어떤 결혼들은 여자를 "보쌈(arranged kidnapping)"해 감으로써 간소화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믿는다.

결혼할 때는 많은 가족들과 마을의 어른들에게뿐 아니라 신랑, 신부의 부모님께도 선물을 드린다. 보통 돼지나 수탉들도 이때 잡게 된다. 음식과 음료수가 풍성하게 제공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보리와 감자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밤새 노래와 축제로 새우기도 한다.

신앙

귀족계급을 포함한 네팔 인구의 90%가 힌두교인이다. 그러나 힌두교와 불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며 약간은 혼합돼있다.

반타와라이의 대부분이 힌두교인이며 또한 그들 중 많은 수가 애니미즘 신봉자이기도 하다. 그들은 불교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혼합은 그들 사이에서 넓고 다양한 신들과 경배 행위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관습들은 대부분 탄생, 결혼, 죽음 같은 사건을 통해 분명해진다. 힌두교의 영향은 죽은 자들에게 매장보다는 화장하도록 이끌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네팔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숨겨져 있었고 잊혀져 있었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개종도 심하게 반대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금지시켰다. 신앙교제의 형벌도 너무나 가혹하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인해 교도소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타와라이 언어로 된 성경이나 예수 영화도 없다. 현재 이들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단체도 없다. 그들 중 그리스도인은 44명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주 내 히스패닉, 가톨릭 급감 · 기독교 성장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중남미 이주민·후손) 공동체와 남미에서 가톨릭 신자가 급감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기독교로 옮겼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최근 중남미 지역 19개국을 대상으로 종교적 친밀성과 신념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69%가 가톨릭 신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60년대 90%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대신 스스로를 기독교 신자라고 답한 비율은 19%로 늘었다. 히스패닉의 뿌리인 중남미 대륙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 4억2500만 명의 40%가 거주하는 가톨릭의 주요 기반이다.

미국 내 히스패닉의 이동도 두드러졌다. 퓨 리서치 조사결과 약 541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히스패닉 중 성인의 77%가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답했으나 여전히 가톨릭을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불과했다. 가톨릭 신앙을 버린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미국 히스패닉의 수는 약 1190만 명에 달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배출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멕시코, 콜롬비아 등 9개국에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일 정도로 여전히 가톨릭의 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10개 나라에서는 가톨릭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에서의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40-41%에 달했다.

중남미 기독교의 보수적 성격도 종교 이동의 또 다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가톨릭은 낙태·동성애·피임·혼외정사·결혼·알코올 등에 반대하는 이들의 비율이 기독교보다 낮다.

또 치유, 방언,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 계시 등의 특징을 가진 오순절(순복음) 계통의 예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기독교인들의 3분의2가 오순절 계통에 속해 있었다.

퓨 리서치는 "사제를 거치지 않고 신과 직접 교류하기 위해, 기독교 교회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를 즐기거나, 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남미 대륙 주민들이 가톨릭을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가톨릭 교세가 약화된 나라에서 최근 낙태·마리화나 합법화, 동성결혼 등 진보적인 정책을 채택하거나, 채택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몇 세대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미 테네시침례회 총회장에 첫 흑인 목사 선출

미국 남침례회 소속 테네시침례회 총회장에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출신 흑인 목사가 선출됐다. 미국 남침례회는 한때 노예제를 지지했을 정도로 백인 중심 교단이다.

교단지인 뱁티스트 앤 리플렉터(Baptist & Reflector)는 최근 테네시침례회 소속 940명 목사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마이클 엘리스(Michael Ellis)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엘리스 목사는 임팩트침례교회(Impact Baptist Church) 담임이다. 8년 전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정집에서 개척했다. 현재 6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엘리스 목사는 총회장에 선출된 뒤 "테니시침례회를 섬길 수 있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나는 우리의 교단을 믿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믿는다. 이번 선거는 우리에게 포용력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총회장으로 추천한 프레드 섀켈포드(Fred Shackelford) 목사는 "멤피스의 엘리스 목사는 이곳 테네시주에서 스스로가 탁월하고 창조적인 지도자임을 증명해왔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독교계 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남침례회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에서 출생한 흑인인 프레드 루터 목사가 2012년 남침례회연맹 총회장에 오른 적이 있디.

"아라파트 PLO 전 의장, 기독교로 개종"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전 의장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와 미국 크리스천투데이, 영국의 기독교계 웹사이트 등 다수의 매체는 11일 크리스천 저술가로 유명한 R.T. 켄달(R.T. Kendall) 목사가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켄달 목사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5년 간 봉사하다가 2002년 퇴임했다.

그는 최근 '프리미어 크리스채너티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 11월 11일 아라파트와 함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Passion of Christ)를 보았다"면서 "당시 그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와 다섯 번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켄달 목사는 "그를 천국에서 본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를 위해 다섯 번 기도해 주었고, 기름으로 안수해 주었으며, 영접 기도를 해 주었다"고 말했다. 켄달 목사는 그와 다섯 번 만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켄달 목사는 2002년부터 아라파트와 만나왔다. 2003년 11월 20일 웨스트뱅크의 아라파트 거주지에서 만나 복음을 전했으나 통역관이 이를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라파트가 오히려 통역관에게 모든 내용을 제대로 통역하라고 지시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아라파트의 부인 수하 아라파트가 1990년 아라파트와 결혼하면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설명했다. 아라파트 전 의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분쟁을 종식시킨 공로로 1994년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무장관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2004년 11월 75세의 나이로 프랑스 클라마르의 페르시 군사병원에서 사망, 이집트 카이로에 안장됐다.

세계에서 가장 긴 설교 53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운트도라의 한 목사가 쉬지 않고 53시간 설교해 세계 기록을 갈았다. 더크로스교회를 이끄는 잭 젠더(사진) 목사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9일 오후 12시21분까지 설교했습니다. 한 시간에 5분 쉬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그 외 시간엔 30초만 쉬어도 도전이 수포가 됐다. 젠더 목사는 53시간 넘게 쉴 새 없이 성경을 주제로 말씀을 쏟아냈다. 그는 설교 노트를 사용했고 발표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도 동원했다.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간호사도 대기시켰고 간간히 음식도 먹었다.

젠더 목사는 중독자 회복 사역 기금 마련을 위해 기록 경신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목회하는 젠더 목사 집안은 술과 마약, 섹스에 중독 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숙원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젠더 목사는 10만 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신기록 경신 이후인 지난 10일 기금 목표도 넘기는 겹경사를 맞았다.

젠더 목사의 기록은 기네스 세계기록에 제출됐고 공식 인증 절차만 밟으면 된다. 이전의 세계기록은 인도에서 나온 48시간31분이었다. 젠더 목사와 동역하는 한 중독예방재단 대표는 그의 체력에 감탄하면서도 "긴 시간을 기꺼이 내준 그 자비로움에 감명 받았다"며 교인들에게도 공을 돌렸다.

"잘난척하는 목사" 성도 괴롭히는 목사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가 성도를 괴롭히는 목사의 특징을 꼽았다. 파이퍼 목사는 최근 인터넷방송 팟캐스트에서 "성도를 괴롭히는 목사에게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한다"며 목사의 '나쁜 예'를 나열했다.

그는 자기 과시하는 목사를 비판했다. 이러한 행태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성도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기는커녕 해친다"며 "이런 목사는 양의 탈을 쓴 늑대나 양 사냥꾼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파이퍼 목사는 인내 부족 목사도 성도를 괴롭힌다고 말했다. 그는 "인내심이 없는 목사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 없이 교인들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군림하는 목사도 비판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목사는 낮은 자리에서 교인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본을 보여야 한다"며 "교회에서 가장 큰 자이고 다른 이들은 가장 끝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요구하신 모습과 반대된다"고 강조했다.

몰몬교 "창시자 스미스, 부인 30-40명" 신도들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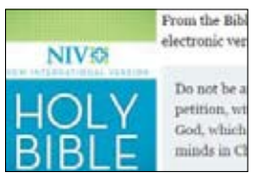
미국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지프 스미스(1805-1844)가 최대 40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교단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이 11일 보도했다.

교단 측은 최근 에세이 형식으로 온라인에 올린 자료를 통해 창시자 스미스의 결혼 경력과 관련한 사실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스미스는 생전에 주로 20-40대 나이에 해당하는 부인 30-40명을 뒀으며 그중에는 이미 결혼한 여성, 14세에 불과한 소녀 등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 스미스와 결혼한 14세 소녀의 이름은 헬렌 마르 킴벌이며, 당시에는 1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었다고 교단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스미스 스스로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세 번이나 나타난 천사의 계시를 따른 것이라고 돼 있다. 스미스의 결혼경력은 종종 역사적인 논쟁의 대상이 돼왔지만 교단 측이 이와 관련된 사실을 인정하고 자료까지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교단 측은 최근까지도 조지프가 엠마라는 단 한명의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CNN은 스미스가 몰몬교 교도들 사이에 신의 계시를 받은 전설적인 선지자로 여겨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은 신도들의 신앙에 적잖은 충격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경서 가장 밑줄 많이 친 구절은?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더앤틀란틱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 온라인서점 아마존의 전자책 킨들 이용자가 '하이라이트(Highlight)' 기능을 적용한 구절을 분석한 결과다. 하이라이트는 관심 있는 내용에 밑줄을 친 것을 말한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고통스러운 감옥생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외적인 상황에 굴하지 말라는 당부를 담았다.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남침례신학교 교수인 에릭 존슨 박사는 미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직접적인 명령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며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등을 고민하며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인들, 성경이 요즘 시대 제일 중요한 책

영국인들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경'을 현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았다.

영국 설문조사업체 유고브(YouGov)가 진행한 출판사 폴리오의 북클럽 '폴리오 소사이어티'의 조사에서 영국 성인 2044명 가운데 37%는 성경이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했다고 가디언이 13일 전했다.

이어 진화론을 담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35%를 차지했다. 두 책에 이어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시간의 역사'가 17%의 지지를 받아 3위에 올랐고,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응답자 15%의 선택으로 4위였다.

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14%), 만유인력의 원리를 처음 알린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12%), 소설가 하퍼 리가 미국 남부 지방의 인종차별을 주제로 쓴 '앵무새 죽이기'(10%)가 5-7위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이슬람 경전인 '코란'(9%),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7%), DNA의 구조를 밝힌 제임스 왓슨의 '이중 나선'(6%) 등이 차례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잉글랜드성공회, 여성주교 허용 최종 승인

잉글랜드 성공회가 여성 주교를 허용하는 교회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BBC방송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빠르면 2015년 초 여성 주교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잉글랜드 성공회는 17일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집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총대의원회(General Synod)를 열고 개정된 교회법을 승인했다. 잉글랜드 성공회는 지난 7월 총회에서 여성 주교를 허용하는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80년 만에 처음으로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여성 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교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성공회는 지난 1994년 여성 사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사제들이 여성의 사제 서품식 주관에 반발하면서 여성 주교의 탄생은 미뤄져 왔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웨일스 성공회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성공회에서는 이미 여성에게도 주교직을 개방하고 있다. 잉글랜드 성공회 중 첫 여성주교가 임명될 수 있는 교구로는 세인트 에드먼스버리와 서퍽, 사우스 웰, 글로스터 등이 꼽히고 있다.

IS, 시리아 북부도시서 23 기독교가정 억류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점거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도시 락카에 기독교 가정 23가구가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정을 유지하는 대가로 보호세를 요구받고 있으며 IS는 기독교인들에게 공물 제공, 이슬람 개종, 처형 중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17일 'FIDES 뉴스 에이전시' 보도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시리아 락카는 최근 미군이 공습을 했던 지역이다. 락카에는 3년 전부터 1500여 기독교가정이 살았다. 그러나 IS 세력이 점령하면서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다. 현재 남아있는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은 자금과 건강문제, 부양 노인 등을 이유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IS는 지난 16일부터 이들에게 공물이나 보호세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보호세는 535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들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보유한 자산이 없어 보호세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세를 내지 못할 경우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

지역 복음주의교회협의회 무니르 카키시 회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떤 서방 지도자도 이 비극을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락카의 교회는 샤리아 법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로 바뀌었고, 지하드는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크리스천포스트는 보도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7)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총신대명예교수

성령과 성경

조명과 계시, 계시와 영감의 정확한 분별 주장
성경의 작용은 신앙을 일으키고 훈련하는 것 포함

칼빈의 개혁신학의 핵심이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는 것이라고 앞서 밝혔다. 카이퍼도 그의 성령의 사역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표준으로 하였고, 성경의 영감과 완전성, 충족성을 확고히 했다. 즉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며,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음을 말했다. 이는 그 당시 현대주의 신학 곧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모든 초자연을 부정하던 시기에 카이퍼는 개혁주의 신학을 변증하였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성령에 의해서 생산된 신적 사역의 예술품 가운데 성경은 그 첫째가 되는 것이다"(Onder de machtige, majestuense Kunstwerken, die Heilige Geest tot stand heeft gelracht, staat de Wondere Heilige Schrifttuur vooraan).

카이퍼는 성경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금강석(Diamond)과 같다고 했다. 어두움에서 금강석은 유리의 한 조각같이 빛이 닿자마자 빛나기 시작하여 신선한 섬광을 내어 우리로 즐겁게 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은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의 도구가 된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완전하고 적합하도록 인도한다. 결국 성경의 작용은 신앙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신앙을 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경은 죽은 문자(doode letter)나 비영적이고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있어, 생수의 원천이요, 영생의 열린 샘이라고 했다.

카이퍼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사역 곧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없는 성령의 사역이나, 성령의 사역 없는 말씀운동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칼빈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혹자들은 카이퍼가 칼빈의 작품을 많이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카이퍼의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칼빈과 라스코의 교회론 비교 연구'이며, 카이퍼'성령의 사역'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더불어 역사한다는 논리는 칼빈과 완전 일치하고 있다.

카이퍼는 말하기를 "성경은 성령님의 주요 예술품이라는 것과 성령께서 성경을 교회에 주셨고,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계시하고, 그것에 아무것도 추가 할 수 없다. 누가 감히 이런 생명의 책을 감하고, 보태며, 신적세계의 사상을 밝힐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데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쪼개어 심는 것이다. 말씀의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뒤따른다"고 했다. 카이퍼는 성령의 사역이 에덴동산에서 밧모 섬까지,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했다. 카이퍼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윤리학자들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선지자나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쯤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말하고 있다. 카이퍼는 영감에 대한 용어들은 분명히 밝히었다.

즉 "이런 사상은 조명과 계시(Openbaring)를 혼돈한 것이요, 계시와 영감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 조명은 성령께서 그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얼마간의 영적인 지각을 명석하게 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기적적인 특수한 방법으로 전달하여 주는 것이다. 영감은 이런 것들과 달리 성령님의 특수하고 독특한 작용인데,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의 심중에 기록할 사실을 지시함인 것이다. … 그러므로 영감은 완전하고 무오한 성경(Volledige,Onfeilare Sdrigtunr)을 교회에 주시려는 전적으로 성령의 포괄적인 사역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위에서 카이퍼의 성경과 성령의 사역, 또는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칼빈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칼럼 음악목회 (40)

절기와 음악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매년 연말이면 많은 교회 찬양대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준비하여 음악예배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LA Master Choral이나 Pacific Choral 같은 전문 합창단들은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12월이면 여러 가지 버전의 '메시아' 연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크 스타일의 메시아나 또는 모차르트 버전 등 그리고 개개인이 속해 있는 교회 찬양대나 합창단에서 메시아 연주를 하지 않아, 메시아 찬양을 부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케스트라와 독창자만 무대 위에서 연주하고 합창은 객석에 참여한 모든 청중이 함께 부르는 Messiah Sing Along도 매년 빠짐없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은 극장에서 고난주간에 초연되었었으나 후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주로 연주되어왔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탄생 그리고 수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생애와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 성탄절이나 부활절 어느 계절에도 상관없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이지만 특별히 성탄절 절기음악처럼 12월에 많이 연주가 되어 마치 성탄절 음악의 대명사처럼 여겨왔습니다.

이 곡이 헨델에 의해 작곡된 해는 1742년이니까 지금부터 272년 전에 작곡된 곡입니다. 그 해 4월 12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초연된 이래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나라 모든 처소에서 매년 연주되어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모든 음악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음악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문화가 바뀌어도 진리가 변하지 않듯이 오랜 역사의 변화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매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곡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곡을 가리켜 '명곡'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요즈음 세대가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갖는 추세에 비하면 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반듯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교회음악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와 같은 곡을 경홀히 여기고 그저 세대가 변했으니까,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화와 음악을 추종하며 CCM이 마치 현대교회음악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교회음악의 본질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급진적이 아니라 편견에서 오는 목회자의 견해에 의한 결정으로 갑자기 교회가 교회음악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찬양대도 해산시키고 오직 CCM만을 세우는 목회자들에게 진정한 교회음악의 가치를 바로 찾도록 소망을 가져봅니다.

문화적으로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면, 그러니까 나이 한 살을 더 먹으려면 떡국이 아니라 적어도 반드시 두 곡의 명곡을 듣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곡은 바로 헨델이 작곡한 '메시아'와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환희'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화인의 척도를 가늠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인생의 철학적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헨델은 젊어서부터 영국의 궁정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정에서 해임되고 인생의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으며 그의 인생 57세에 그가 메시아를 영접하고 회심과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걸작을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토벤은 1824년에 제9번 교향곡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완전히 청력을 잃고 음악가로서는 가장 불행한 시기에 이곡을 쓴 것입니다. 또한 이 곡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가 죽기 전 이미 곤고했던 인생을 마감하고 환희로 가득찬 천국을 바라보며 제9번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환희의 송가"로 부제를 달아 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심오한 음악철학의 소유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그에 대하여 후세 사람들은 '악성' 즉 음악의 성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년음악회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연주된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환희'와 헨델의 '메시아'를 듣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낸다면 문화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함을 채우지 못한 나이를 먹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루 저녁 시간을 내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주회장을 찾아 가보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3면에서 계속〉

이슬람국가가 최근에 보여주었듯이, 한 교회를 파괴하는 효과적인 작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다. 그리고 이교 신앙을 실천하는 주민들을 죽이거나 내쫓는다. 그렇지만 그렇게 탄압받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문제는 절대로 간단치 않다.

지난 천년 동안 크리스천들은 거듭 질문을 해야 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패배와 굴복, 노예의 고통을 겪도록 놔두시는가? 그리고 조국의 폐망을 신앙의 결여와 민족적 언약의 배신에서 찾은 히브리 선지자들을 보면서, 성경의 선례에서 몇 가지 답을 찾는다. 이 관점으로 보면, 최악의 재난조차도 당신의 죄 많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성공과 안전을 구가한 다른 교회들보다 재난 당한 그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든 더 나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의로운 남은 자'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따르고 고난을 견뎌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악몽처럼 보이는 유배가, 그렇게 쫓겨난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다른 땅으로 가져갈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추방과 디아스포라 경험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강력하게 신앙을 퍼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 출신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서방 세계 곳곳의 낯선 땅에서 그들의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하며 성장해가고 있다.

〈8면으로 계속〉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요기도회: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718)639-3021, Fax.(718)507-6376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718)482-7788, Cell.(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낮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패니쉬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15편 : 육신의 생각에서 구원 받는 믿음의 사람

시편 115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반복하여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그 안에 풍성한 복이 담겨 있는 보석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우리의 아버지는, 대가를 보고 사랑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무한정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주신다는 것을 거절하게 합니다. 받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풍성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도 많고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겠나?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안 돼.'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막아 버립니다.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면서도 자기의 율법 앞에서 자신을 보게 하여 그 복을 받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지, 감사하지, 그러나 5년이나 10년쯤 지나 좀 변화되면 그때나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에서 나오고 그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 받은 성도들은 그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불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있어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풍성하게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 죄로부터 오는 육신의 생각에서도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은 생각의 변화 과정이 발전이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변화 과정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정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면 '아, 그렇구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요 표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 생각으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셔도 걱정이 자꾸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못하니까, 알면서도 생각이 안 돌아가니까 걱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공급하는 걱정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니까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9절에서 보듯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수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것 같지만 강철보다도 강합니다. 저 위쪽에서는 나뭇가지처럼 흔들거리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굳어져 있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굳어진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둘째로는, 자신을 향하여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임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걱정을 많이 깊이 묵상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영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가슴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이 어릴 때나 성인이 되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철이 들면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아들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유일한 복입니다.

삶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드린다!

'2014 추수감사절 맞아 첫 추수감사절 의미 재점검

추수감사절의 근본 목적은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주셔서 풍성한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있다. 신대륙에서의 첫 수확하게 된 청교도들은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실질적으로 신대륙 생활에 도움을 준 이웃 인디언들을 초대해 추수한 곡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다.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새 곡물로 만든 음식과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교회 역시 그 안에서 그 모든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넉넉한 소출을 주셨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감사와 나눔이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한다.

진정한 감사의 절기...청교도 첫 추수감사 예배의 감격과 감사 재현

청교도들은 11월 중순 케이프코드에 도착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다.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 해(1620-1621) 겨울 2-3개월 이내에 102명 중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1월과 2월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세상을 떠났다. 생존자는 50명 뿐인데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신음했다. 그러나 6-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해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원 헌신했다. 경건한 청교도들이야말로 굳건한 믿음 위에 마음을 하나로 통일한 불굴의 의지를 지닌 크리스천들이었다.

엄동설한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와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에 기대 이상에 넘치는 추수를 하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 시편 126:6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엄동설한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라는 구절은 이를 의미한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서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성수주일, 십일조, 경건생활을 했다.

1623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 절기로 선포했으며, 1789년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를 전국적으로 지킬 것을 선포했다. 그러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추수감사절이 왕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중단했지만 1863년 링컨 대통령은 폐지됐던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연례적인 축일로 선포하면서부터 새롭게 시작됐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진행 중이었지만 추수감사절 하루 동안 전쟁이 중지되기도 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89년 10월 3일 전 국민이 감사절을 지킬 것을 다음과 같이 공포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과 호의를 겸손히 간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임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들 미합중국의 백성들은 오는 11월 26일 목요일을(추수감사절로) 헌신하기를 추천하며 이에 서명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나락 한 알도 생명을 담아 키우시는 하나님 혹은 땅에서 난 곡식으로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등 진정으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리는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예배는 헌금봉투로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감사를 예배순서 안에 넣어서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예배가 될 때, 청교도들이 첫 추수감사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재현될 것이다.

〈7면에서 계속〉

훨씬 더 도전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정 땅에 있는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놔두시는가? 그렇다. 교회들은 그들이 번성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한다. 그러나 그들의 본향은? 철저하게 파괴된, 남은 자가 전혀 없는 그들의 교회는? 이 신학적 딜레마는 아마도 2015년에 오랫동안 기다린 엔도 슈사쿠의 1966년 소설 "침묵"이 영화로 상영되기 시작하면 더욱 많이 토론될 것이다.

엔도는 잔인한 탄압으로 소멸해가고 있던 17세기 일본 천주교의 운명을 탐구했다. 일본 천주교는 이름이 알려진 2000명의 순교자들을 기리고 있지만, 수만 명에 이르는 보통의 신자들은 참수형과 화형과 십자가형으로 죽어갔다. 일본은 해변에 세운 물 십자가형이라는 유별나게 잔인한 방식을 사용했다. 간조 때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제는 몇 날 동안 만조가 되면 물에 잠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익사했다.

"침묵"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한 사제는 모든 탄압과 공포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분께 바친 이 끔찍하고 무자비한 희생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아니, 그 사제는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를 지키시기 위해 기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셨다. 피신하는 희생자들을 숨기고 보호하기 위해 어떤 천사도 내려오지 않았다. 어떤 박해자도 형을 선고하고 십자가를 세울 때 눈이 멀지 않았다. 어떤 박해자도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처벌로 전염병에 걸리거나 군사적인 패배를 당하지도 않았다. 현대 이라크에서처럼, 그 박해자들은 야만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 어떤 견제도 없이 그들이 할 짓을 다 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처럼 돌보지 않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까?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 운동 (5)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중국 내외 교회지도자 양성위해 연장신학교육 필요
신학학위 수여할 중국아시아신학대학원 설립 요청

2. 연장신학교육(TEE)을 통한 교회 지도자 양성

분명히 지금은 중국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때이다. 중국교회는 나날이 성장하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중국의 교회 성장이 가로막히기 전에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필요한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을 양육시켜야 하는 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다"(마9:37).

학식 있는 신자가 있는 도시에서 더 많은 가정교회가 성장하는 이때에 중국교회는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된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해야 한다. 이것이 가정교회와 삼자교회의 공통된 화두 중에 하나이다. 지도자 훈련은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된다. 일반 평신도 수준에서 지도자 훈련을 하는 것과 사역자들(목사, 선교단체 지도자, 신학교수)을 위한 훈련이다.

연장신학교육(TEE) 훈련 프로그램 또는 장거리 교육(Distant Education)은 매우 중요해졌다. 냉전 기간(1950-90)중에 TEE는 공산국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다. TEE 프로그램에 따르면 성경교사는 매주 소그룹을 만나서 준비된 연장교육 교과서(Programmed Instruction Materials)를 사용하여 성경말씀을 가르쳤다. 이 PIM 교과서는 각자 다른 수준의 학위에 맞도록 준비되었다. 오늘의 TEE사역은 현대 매스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수많은 종류의 교육 자료(문서, 인터넷, DVD, 라디오, 스마트폰)를 갖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OMF, WEC, SIM과 같은 많은 전통적인 선교단체들은 중국을 포함하여 접근제한국가(Restricted Access Nations)에서의 교회개척을 매우 강조해왔다. 그러나 앞날의 선교전략은 숙련된 기독교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 사역이다. 그러므로 많은 선교단체들은 중국의 TEE사역과 신학교육을 도모하는 좀 더 영적이고 학문적인 자질을 갖춘 선교사들을 모집해야 한다.

3. 신학 교수들에 대한 간절한 필요

홍콩의 국제중국성경신학교의 학장인 토마스리 박사는 2012년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선교협회(Asian Society of Missiology) 세미나에서 중국에는 21개의 삼자교회의 다양한 수준의 신학교를 포함하여 총 700개의 신학교와 성경학교들이 있다고 말했다. 많은 가정교회 신학교들이 도시에 있으며, 그들의 교육 사역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5년간(2008-2012) 삼자교회는 24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5,195개의 교회를 세웠고 1,057명의 목사에게 안수를 주었으며, 482명의 견습 목사를 세우고 1,443명의 장로를 세웠다. 21개의 삼자교회 신학교에는 292명의 교수가 가르치며 4,36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신학 학위를 가진 신학 교수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중대한 문제이다. 오늘날 신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중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국인 신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국 외부에서 많은 중국신학자를 양성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 신학교들이 그들의 학문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sia theological Association(ATA)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학위가 아시아와 서양의 다른 신학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10-20년은 중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중국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수요에 맞춰서 중국 내, 외부에서 더 많은 교수와 목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내면에 물질주의가 싹트기 전에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을 배출했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는 종교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들이 중국 목사와 신학자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해외에 있는 중국 신학교들, 특히 북미와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신학교들은 더 많은 중국인 신학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아시아 신학교들과 같이 협력하여 동역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 신학박사학위나 기독교교육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한국 신학자의 수가 2000명 이상이다. ATA 인증 재평가 팀은 2013년 10월에 4개의 신학교(총신 신학대학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백석 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총신 신학교(합동)의 사당동 캠퍼스에 700명의 대학원생(Ph.D., D. Ed., Th. M.)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는 Ph. D과정(20명), Doctor of Theology(10명), Doctor of Biblical Studies(3명), Doctor of Lifelong Edcation(28명)이 있다. 횃불 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는 40명의 Ph.D.과정 학생들이 있었다. 백석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Ph.D. 학생(56명), Th.D. in Ministry(35명), Th.M.(71명)이며 지금까지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졸업생이 Ph.D.(34명), Th.D. in Minstry(49명), Th.M.(72명)이 배출되었다. 이 외에도 적어도 10개의 다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인 학생이 적어도 400-500명이 될 것이다.

지금은 한국인 신학자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서도 한국에서 교수직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교회에는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이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과 타 아시아 교회들은 자질을 갖춘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찾고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은 지역 교회들을 동원해서 25,000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170개의 나라에 파송했지만 신학교와 신학 교수사역에 대한 선교비전은 아직 유아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인 신학자들을 대상으로 신학교수 선교대회가 필요하며 또한 신학 교수와 기독교대학 교수들을 위한 선교단체가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가정교회 신학교들은 ATA 인증을 받아서 그들의 학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시아의 다른 신학교들로부터 학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아시아의 ATA를 비롯한 6개 대륙(아프리카, 남미, 중미, 유럽, 북미, 호주/뉴질랜드)의 신학교 인증협회로 구성된 국제복음신학교육협회 (International Council of Evangelical Theological Education-ICETE)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한다. ATA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국 신학교들이 국제 신학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 이유는 중국교회와 신학교들은 국제기독교 사회와 아주 오랜 시간동안 고립되어왔기 때문이다.

저자는 네 가지 신학 학위(Ph.D, Ed.D, D.Min, Th.M)를 수여할 수 있는 중국 아시아 신학대학원(AGST-Chinese)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GST)는 1984년 홍콩의 ATA 이사회에서 창립되었다. 1985년부터 AGST-Philippines, AGST-Japan, AGST-Alliance 그리고 AGST-Indonesia에서는 200명이 넘는 졸업자들을 배출하였다.

AGST-International(한국)은 2013년 조직되었으며 1972년에 하와이에 창설된 Hawaii Theologicl Sminaary 에서 관활하게 되었다. ATA가 인증하는 11개의 한국 신학교가 협력하고 있다. 아시아 각 나라의 AGST 프로그램은 ATA의 인증을 받고 있다.

〈계속〉

시(詩)로 읽는 성경(聖經) -모세오경

志常 김길홍 목사
(시인/소설가)

천지창조(天地創造 The Beginning) (창세기 1:1-2:25)

야훼(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 하시니라
창문 활짝 열라! 님의 숨결 머무는 곳!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씨 맺는 채소, 과일 그리고 나무들

넷째 날 땅, 해, 달 그리고 별들
다섯째 날 새, 물고기들 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기어 다니는 것들, 짐승들
그리고 사람 지으셨으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 칠일 안식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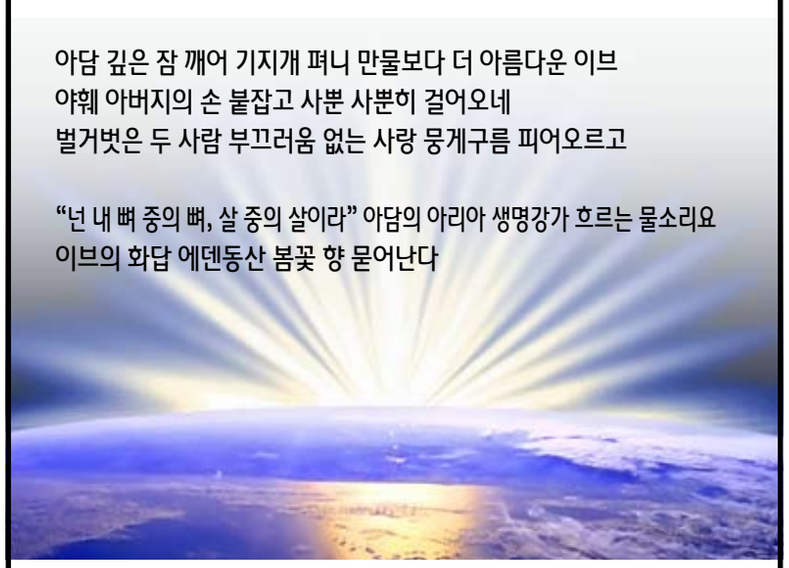
하아얀 물줄기 치솟아 오르고 만물 합창하는 에덴 동편
영원한 신비의 나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네

동산에 생명 강줄기 넷 흐르고 선악과 섰으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라
야훼 "이 실과 먹으면 죽으리라" 자유의 선포요 전능자의 예지라
사람과 함께 하시고픈 님의 마음 거룩 거룩 거룩

야훼 자기 모습으로 지은 자 아담이요 아담 갈비뼈로 빚은 자 이브라

아담 깊은 잠 깨어 기지개 펴니 만물보다 더 아름다운 이브
야훼 아버지의 손 붙잡고 사뿐 사뿐히 걸어오네
벌거벗은 두 사람 부끄러움 없는 사랑 뭉게구름 피어오르고

"넌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아담의 아리아 생명강가 흐르는 물소리요
이브의 화답 에덴동산 봄꽃 향 묻어난다



저자의 말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시로 엮어가는 것이 말씀의 가감이 될까 두렵기도 하고 한편 떨리기도 했다. 성경 중 모세오경을 시로 풀어가는 일은 아직 까지 그 누구도 밟아보지 않았던 처녀림(處女林)이기에 말씀의 신비감을 더듬어가다가 미로 (迷路)로 빠질까봐 기도하였다. 성경의 중심사상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기초를 두었으나 내용이 방대하여 표현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도 많았다.

설명 또는 해석하려 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고 신학사상을 떠나지 않으며 시상(詩想)을 살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으려 했다.

오래 전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야훼)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목욕을 했다고 한다. 그런 경외로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여러 번 울었던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이라 믿는다.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생명나무
503면 / 16,000원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닥다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제3회 뉴욕총신의 밤

뉴욕총신대학교 총동문회(총동문회장 강유남 목사)가 주최하는 제3회 뉴욕총신의 밤이 12월 2일(화)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교수, 뉴욕총신동문, 재학생(부부동반 환영)이며 회비는 개인 30달러, 부부 50달러. 경품과 기념품이 증정되며 Yes Lord Band 연주도 있게 된다. 뉴욕총신대학교 학우회가 협찬한다.

▲문의: (551)655-4224, (201)952-5718

'노란 손수건 전도법' 전도훈련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허윤준 목사)가 주최하는 '노란 손수건 전도법' 전도훈련이 12월 8일(월), 9일(화), 10일(수) 오전 10시, 오후 8시 총 6회에 걸쳐 뉴욕 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정진모 목사.

▲문의: (718)637-1470

반주자 청빙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가 2부 찬양대 반주자를 청빙한다. 주일 성가대를 반주할 피아노 전공자로 이력서, 신앙고백서 및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moaksong@gmail.com

'싱글맘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오른손구제센터(대표 안승백 목사)가 주최하는 '싱글맘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행사가 추수감사절인 11월 27일 (목) 오전 10시 30분 Global Leadership Fellowship(46-20 Parsons Blvd.)에서 열린다. 싱글맘과 자녀들 초청해 감사예배, 만찬, 장학금 수여, 특강과 여흥 등 위로의 시간을 갖는다. 주최 측은 당일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 후원을 바라고 있다.

▲문의: (646)233-6722, (201)675-9592

뉴욕목사회 정부회장 입후보자 명단 발표

회장 이만호 목사, 부회장 김상태 김영환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 제43회기 정부회장 입후보자 명단이 발표됐다.

회장 후보에는 현 부회장 이만호 목사가, 부회장 후보에는 기호 1번 김상태 목사, 2번 김영환 목사가 입후보했다.

뉴욕목사회 선관위원회(위원장 송병기 목사)는 12일 오후 5시 후보 마감을 하고 13일 오전에 모여 서류를 심사하고 각 후보들을 발표했다. 선관위원회는 13일 오전 모임에서 부회장 후보의 기호 추첨 결과 1번 김상태 목사, 2번 김영환 목사로 결정했다.

또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23일(주)까지 입후보 소견에 대한 언론 인터뷰, 또는 서면이나 이메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과 일체의 금품 제공을 금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만호 목사는 회장에 단독 출마했으며, 부회장 후보는 2명으로 김상태 목사와 김영환 목사는 경선을 치르게 됐다.

각 후보들의 당락 여부는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뉴욕목사회 정기총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후보부문	회장후보	부회장후보 1번	부회장후보 2번
이름	이만호 목사(61세)	김상태 목사(58세)	김영환 목사(63세)
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주님의교회	뉴욕효성교회
교단	순복음	PCA	SBC
목사안수	1882년 순복음	1989년 예장합동	2001년 미남침례회

뉴욕교협 41회기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성령이 이끄시는 화합과 소통의 교협"

뉴욕교협 제 41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뉴욕교협 제 41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원, 제 29대 이사장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지난 18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로써 41회기 뉴욕교협은 "성령이 이끄시는 화합과 소통의 교협"이라는 표어를 걸고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 담임)를 회장으로 출범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이종명 목사 인도로 시무기도 이병홍 목사,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 특송 조애실/정지은, 뉴욕권사합창단, 말씀 방지각 목사, 헌금기도 박영진 장로, 축도 박희소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시133: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다"며 "이 땅에서도 천국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 죄를 회개하면 항상 기쁨이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항상 지옥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인간 모두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 장점, 단점을 잘 살펴서 화합함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는 얻는 41회기 교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이취임식은 총무 김희복 목사의 사회로 기도 신현택 목사, 이임사 김승희 목사, 교협기 인계, 격려사 장석진 목사, 축사 황동익 뉴욕목사회 회장, 이병준 뉴저지교협 회장, 민승기 뉴욕한인회 회장, 전희수 미주여성목회자협 회장, 축하메시지 최영식 한기부 대표회장,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 축하동영상 한기홍 미기총 대표회장, 취임인사 이재덕 목사, 이상호 집사, 임실행위 위촉장 수여, 감사패 증정/김승희 목사, 장경혜 목사, 이주익 장로, 박영진 장로, 광고 서기 한기술 목사, 폐회 및 오찬기도 황경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임회장 김승희 목사는 지난 1년간 도와준 뉴욕초대교회와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신임회장 이재덕 목사는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41회기는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입성한 것과 비교하며 플러싱 지역을 떠나 리틀넥으로 이사하는 역사의 징검다리로 새 건물에서 예배와 선교, 기도로 섬기는 시대가 됐다"고 말하고 "'회원 같은 회장'으로, 그러나 직책의 권위와 사명을 당당하게 펼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뉴욕한인목사회를 비롯 각 단체에서 총 16개의 화환을 보내 예배장소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여성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여성한인여성목회자협 11월 정기예배

미주여성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 11월 정기예배가 지난 17일 뉴욕한마음교회(담임 정양숙 목사)에서 열렸다. 회원들은 이날 예배를 드리고 12월 성탄찬양축제를 위한 합창연습을 했다.

예배는 회계 조상숙 목사 사회로 기도 박옥자 목사(홍보분과), 특송 안경순 목사(사회분과), 말씀 정양숙 목사, 봉헌기도 김경자 목사(감사), 합심기도, 광고 김정숙 목사(총무), 축도 전희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양숙 목사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사43:18-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며, "첫째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 둘째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셋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찬양하자"라고 전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동 협의회의 임원 및 회원들을 위해 △이웃사랑 성탄찬양축제를 위해 △한마음교회를 위해 등 3가지 제목을 놓고 통성 기도했다.

예배 후에는 사랑의 터키 재단(FTKAF)에 대한 사역보고가 있었으며 오찬을 하며 10월과 11월에 생일을 맞은 회원들의 생일축하 케익을 자르는 시간도 가졌다.

미주여성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는 12월 8일(월) 오후 5시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이웃사랑 성탄찬양축제를 갖는다. 티켓은 10달러.

〈유원정 기자〉

"'복음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살라!"

동부개혁장신 제28회 장학기금 마련 찬양축제

동부개혁장신 28회 장학기금 마련 찬양축제를 마치고 교수, 합창단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제28회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축제 첫 시작이 지난 12일 오후 8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남은 일정은 19일(수) 오후 8시 뉴욕새사람장로교회(담임 이종원 목사)와 28일(금) 오후 8시에는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열린다.

1부 예배는 총무부장 김혜천 목사 인도로 기도 최진식 학생회장, 성경봉독 이금순 학생부회장, 찬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합창단(지휘 윤원상 교수), 말씀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김성국 목사는 "복음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롬1:1-7)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역이나 교회부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가 초점이 돼야 한다. 또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찬양순서는 독창 소철화 교수, 합창 신학교합창단, 트럼펫 독주 신동기 학우, 간증 이재환 학우, 인사 김혜천 목사, 헌금 및 찬송, 봉헌기도, 합창 신학교합창단, 축도 이규본 목사(1회 졸업생, 주비전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부개혁장신 합창단은 열심히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특히 이재환 학우는 개인적인 성공과 투병, 교회에 대한 실망과 개종, 아내의 만남과 다시 교회출석 등 삶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으며 "옷자락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 찬양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김혜천 목사는 광고를 통해 회복중인 학장 장영춘 목사와 간 질환중인 학감 문경환 목사, 최근 심장수술을 받은 교수 강기봉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213)215-8523, Fax.(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 오전 9:1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4부 예배 : 오후 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323)466-1234, Fax.(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 은 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오후 1:00
일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 대 예 배: 오전11:15
주일영어예배: 오후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 일 학 교: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비전Acts 1:8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고,대,청년부: 오후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562)690-9800, Fax.(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 변윤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yon@gmail.com
Tel.(714)826-0100, Cell.(714)944-9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한어 2부예배: 오전11:00
성 경 공 부: 오후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교 육 부: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오후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 오전 11:00
Tel.(818)249-2871, Fax(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에서 열린 제75회 순국선열의날 기념식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 랄프 안 선생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제7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 광복회 미주서남부지회 공동주최

제7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에서 17일 오전 11시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이사장 민병용)과 광복회 미주서남부지회(회장 배국희) 공동주최로 열렸다.

박영남 목사(광복회 회원)의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은 제시카 이(민주평통)의 애국가 및 미국국가 제창이 있었으며 민병용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배국희 회장이 약사보고, 그리고 김현명 LA총영사와 도산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 랄프안 선생(독립유공자 가족대표)의 기념사가 있었다.

이어 미주독립운동 및 독립유공자 현황보고, 만세삼창으로 이어졌다. 이날 기념식은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을 참석자들이 관람하는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0분 로즈데일묘지에 독립유공자를 위한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국선열의 날은 대한민국의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등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와 존경을 표하는 날이자 그들의 독립정신 및 호국정신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이며 매년 11월 17일에 지켜지고 있다.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총회 때 매년 11월 17일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대한독립투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충성심을 기리는 날로 독립투사들을 추모하는 날로 정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민간단체 주관으로 열리다가 1962년부터 1969년까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렸다. 1970년 다시 민간단체 주최로 열리게 됐으며 1997년 독립유공자들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재 지정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게 됐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새언약교회 2014년 가을철대흥성회가 서울 두란노교회를 담임하는 이상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축복의 통로!" 주제 이상문 목사 초청

남가주새언약교회 2014년 가을철대흥성회

남가주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두란노교회를 담임하는 이상문 목사를 초청해 3일에 걸쳐 2014 가을철대부흥회를 가졌다.

이번 부흥회는 "축복의 통로!"라는 주제로 첫 날은 '주님의 도구'(마2: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둘째 날은 '악인과 의인의 형통'(시73:1-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셋째 날은 '그리스도의 흔적'(갈6:17-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참석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됐다.

이상문 목사는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돼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떠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분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한편, 남가주새언약교회는 지난 2011년에 설립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만 4년 만에 한인 타운 중심지인 6가와 카탈리나에 있는 로얄 빌딩으로 옮겼으며 내년 1월초에는 지금의 두 배 크기로 확장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문의: (213)434-1083

〈기사제공: 남가주새언약교회〉

소망소사이어티와 UCI시신기증프로그램 공동주최 시신기증 추모식이 15일 UCI에서 열렸다.

기증자 가족 및 신청자 130명 참석

소망소사이어티 . UCI 공동주최 시신기증 추모식

소망소사이어티와 UC어바인(UCI) 시신기증 프로그램이 주최한 추모식이 15일 오전10시 UC어바인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식은 시신기증자 가족 및 시신기증 신청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보고 함께 추모하기를 원하는 참석자 등 130여명이 함께했다.

최경철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추모식은 마크 브룩스 UCI 시신기증 프로그램 디렉터는 시신기증이 의과대학생들 및 연구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며 "시신기증이란 고귀한 일에 의대생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공부한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한국어 컨설턴트이자 UCI 서창석 해부학 교수(소망소사이어티 후원이사)는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UC어바인 해부학실에서 지내며 기증자들의 참뜻을 이해하고 숭고한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영원히 남기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잊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년 사이 700여명에 가깝게 늘어난 한인 기증자들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큰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UCI 의과대학생 2명이 참석해 감사인사를 했으며 김명희 전 도사, 데보라리, 사라리 씨 등은 고인이 된 부모님의 시신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프로그램을 주변에 알리는데 힘쓰는 세 홍보대사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유태윤 홍보대사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죽기 전에 하는 것으로 죽어서 시신을 기증함으로 누군가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름답게 남길 수 있는 삶의 무언가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병희 홍보대사는 "40여년간 미국에 살면서 받은 도움에 시신을 기증함으로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범영 홍보대사는 국가유공자의 시신기증을 소개하며 "마지막 가는 길에 빛나는 이웃사랑이 시신기증"이라고 말했다.

모든 순서의 마지막으로 유분자 이사장은 사망 후 시신을 기증한 고 신연옥(전 간호사회 회장), 고 윤인숙(소망우물 후원자) 씨를 언급하며 현실에 적응하느라 바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신을 기증함으로 의학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감사했다.

이번 추모식에서 UCI 시신기증 프로그램은 소망소사이어티와 함께 한인사회에 시신기증을 알렸다는 것에 감사하며 고인들을 오래 기억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야생화 씨앗을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

현재 소망소사이어티에는 매일 10명에 가까운 한인신청자들이 UCI 시신기증 프로그램에 신청접수를 하고 있으며 한인신청자는 690명, 사망 후 시신기증이 완료된 시신은 28구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나성소망교회 새생명 감사축제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율 목사)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새생명 감사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23일은 남장금 오찬과 300달러 상당의 B형간염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한편 11월 17-20일까지 진행되는 이민 감사 특별 저녁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213)380-0258/550-7377

자선냄비 봉사자 모집

구세군 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불우이웃돕기의 대명사인 자선냄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루 2시간 원하는 날짜에 봉사함으로 지역사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교회와 학생 그리고 단체 등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한다.

▲문의: (408)480-3171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가 12월 6일(토)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개최된다. 본 사랑의 축제는 2000년부터 남가주한인교계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시작된 연합사역이다. 그동안 남가주지역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순환 개최해오다 비용부담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올 행사가 열리는 나성영락교회는 이번 행사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사역에 관심 있는 학생, 성도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213)290-7353

주향교회 신앙사경회

주향교회(담임 김신 목사) 신앙사경회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아래 오는 29일(토)과 30일(주)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림형천 목사(잠실교회 담임).

▲문의: (213)383-4952

'Thanksgiving Music Festival'이라는 주제로 열린 더텐트 파킹랏콘서트에서 그룹 익투스가 찬양하고 있다

파킹랏콘서트 '감사절 페스티벌'로

더텐트, 한인타운에 건전한 공연문화 조성

더텐트(대표 방다니엘 목사)의 파킹랏콘서트가 'Thanksgiving Music Festival'이라는 주제로 15일 오후 7시30분 가주영어학교 주차장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 박혜경(bG ccm production), CCM가수 허지애, 여성듀오 러브위스퍼(이수정, 이진미), CCM 루키 입상자 그룹 익투스(원하트미니스트리), 소프라노 조현주, 색서폰 연주자 김성규 집사(은혜한인교회),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씨가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며 가을밤 LA 한인 타운을 아름답게 가꿨다.

특히 이날 공연장에는 외국인들이 관람하는 모습도 발견돼 유흥문화에 젖어있는 주말저녁의 한인 타운에 크리스천들의 건전한 공연문화가 스며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평가가 내려지게 됐다.

또한 이날 출연자들과 참석자들을 위해 제공된 핫도그와 커피를 비롯한 먹거리는 아주사퍼시픽대학교의 후원으로 이뤄져, 젊은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연문화에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연합하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다.

더텐트 파킹랏콘서트는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1주년 기념이자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열린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신암교회 담임목사 청빙

브라질 상파울로 신암교회(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본 교회는 설립 25년 된 교회로 자체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체육관과 교육시설(각 교실, 도서실 등)이 완비된 교회입니다.

1. 자 격: (1) 장로교 신학교(합동측) 본 노회 가입에 적한하신 분
(2) 연령 40대에서 50대

2. 제출서류: (1) 목사 안수 증명서
(2) 이력서(사진은 여권사진 크기로)
(3) 가족소개서 및 가족사진
(4) 담임목사 목회방침 계획서 및 설교 CD

3. 제출방법: (1) 직접 방문
(2) 우편송부시에는 반드시 등기로
(3) E-mail: shinamchoungbing@hotmail.com / shinamchoungbing@gmail.com
Contato: 00551194121-0855(강용학 장로)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보낼시 두 이메일 주소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제 출 처: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TEL. 2693-0314)
(R. Rodovalho da Ronseca, 194-PARI, São Paulo SP Brasil CEP 03028-030)

5. 제출마감: 2014년 11월 30일 까지(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 의: 청빙위원장 강용학 장로(011-94121-0855)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① 교 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 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 택 주 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목회서신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승훈 목사
(시카고 가나안교회)

오래전 초등학교 시절 방학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위인전기를 읽고 독후감 을 쓰는 숙제였다. 숙제해가느라 적지 않은 위인들의 전기를 읽었었다. 책을 읽고 쓰는 독후감의 포인트는 위인들의 훌륭한 삶에 대한 배울 점이다. 위인들의 훌륭한 삶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생각에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다.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진다. 어떤 분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교회 주일학교에 매주 데리고 왔었다. 아들을 주일학교에 데려다 놓고는 "휭"하니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어느 주일날 그 아이의 담당 선생님이 본당에 어른들 예배가 있다고 안내를 해주었다. 그분의 반응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가면 나쁜 것 가르치지 않고 예수의 훌륭한 점들을 가르치니까 많이 보고 배우라고 제 아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삶의 훌륭한 점을 배우는 취지라면 무신론자, 타종교인 가릴 것 없이 높은 관심과 좋은 호응을 보인다. 소위 예수님을 삶의 모범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기독교내 자유주의적 사고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농도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사고가 가지는 위험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삶의 모범의 대상으로는 여기면서 신앙의 대상으로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일반 위인들 중의 한 사람 정도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인류들의 귀감이 될 만큼 흠 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들이 본받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분이시다.

여기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람 사람간의 윤리와 도덕적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자 하는 생각만큼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적 삶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생각만큼 삶이 따라 갈수만 있었다면 보다 나은 세상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은 이 부분의 난해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포인트 한다. 사람 사람간의 윤리와 도덕적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결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죄"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신다는 차원 이전에 우리의 "죄"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요 그분이 곧 구세주요 그분이 곧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에 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주목하지 않고 단순히 그분의 모범적인 삶을 추구 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삶이 되어지지 않는 그저 생각에 그칠 뿐이다. 삶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다. 삶은 현실이다. 삶이 현실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앙의 모범을 뛰어 넘어서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받아 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A Line in the Sand' 영적부흥 기도

11,11 CA 다민족연합기도회 한인들 적극 참여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지난 11일 얼바인에 소재한 버라이즌 와이어레스 원형극장에서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열렸다.

'A Line in the Sand'라는 주제로 오후 6시45분부터 열린 한인 기도회는 찬양팀(인도 박종술 목사)의 뜨거운 찬양인도로 시작, 한기홍 목사(대표대회장/은혜한인교회)의 인사와 기도가 있었으며 20명의 강사들이 각각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제목은 크게 △자신과 나라의 죄에 대한 회개 △교회와 가정의 회복 △학교와 문화의 회복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대부흥을 위한 기도 등 5개로 나뉘어졌다. 각 기도제목마다 3명의 강사가 대표기도 형식으로 기도했으며 네 번째 강사는 '주여 삼창'을 청중들과 함께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했다.

이번 기도회는 먼저 국가와 군인들, 정치인들, 할리우드 영화계와 예술인들을 위한 합심 기도가 1시간 동안 진행된 후, 본격적으로 민족별 기도회가 이어졌다. 오후 4시부터 흑인들의 기도회가 시작됐으며 이어 라티노들, 이스라엘인들의 기도가 각각 30분씩 계속됐다.

이번 기도회는 최초 LA에인절스 야구장에서 열기로 했으나, 장소대여비용 문제로 혼다센터로 옮기게 됐다. 그러나 기도회가 열리기 1주일 전 장소가 취소돼 대회조직위원회는 급히 장소를 옮겨야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장소이전은 장소대여를 위한 디파짓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져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에서 한 참석자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또한 16,085명 수용 가능한 장소에 5천여 명이 운집한 것과 대부분 한인들이었다는 것에는 다민족기도회의 성격이 퇴색해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회개와 회복에 대한 그리고 평양대부흥과 같은 부흥이 다시 오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있었지만 정작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이번 기도회에서 미흡했던 점은 추후 같은 성격의 기도회가 열릴 때 개선돼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차질과 혼란이 있었음에도 한인들이 하나가 돼 기도의 열정을 나타낸 점은 주류기독교계에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한편, 이번 행사를 A Line in the Sand 측과 함께 준비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미기총)는 이 기도회의 불길을 한인교계 전국 규모로 이어갈 계획이다.

미기총은 △2015년 1월 21-23일 LA 은혜한인교회 △2월 18-20일 달라스 △3월 18-20일 뉴욕 △4월 15-17일 워싱턴DC △5월 13-15일 시카고 △6월 24-26일 시애틀 등 6개 지역에서 "도시와 미국의 부흥을 위한 전 미주순회 연합기도회"를 한인교회 중심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학교 개교 37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서 이상명 총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학교'

미주장신대 개교37주년 기념 후원의 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개교 37주년 기념 후원의 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학교'라는 주제로 14일 저녁 6시30분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동신찬양팀과 재학생 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명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해외한인장로회(KPCA) 전총회장 김인식 목사의 개회기도, 만찬, 본교소개 동영상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이상명 총장이 학교 비전을 소개했다.

이 총장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신실한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는 이민교회 현장과 교계전체의 비전이고 사명이다. 미주장신은 이 비전을 가지고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 거룩한 비전과 사명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후원의 밤은 재학생 김승현 전도사와 본교이사장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이 후원요청 메시지를 전했으며, 박흥식 교수가 클라리넷 연주, 본교합창단(지휘 조혜정 교수)이 특별찬양을 하고 이상명 총장의 감사인사를 끝으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만화전도 교과서로 전도 도전 받아

샬롯장로교회 가을부흥회, 강사 최복규 목사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지난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을부흥회를 가졌다.

강사 최복규 목사에 대해 나성균 목사는 "개척부터 교회당을 완공하고 전도와 양육에 힘써 목회해오던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은혜롭고 유익되며 크게 도전되게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친 최복규 목사님을 강사로 보내주셨음을 감사한다"며 "그의 겸손과 생활화 됐으면서도 신학적으로 깊은 고민과 실천의 경험으로 저술됐던 만화전도 교과서를 직간접으로 대하면서 다시 한번 전도의 도전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지도 받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동 교회는 10월말부터 5주간에 걸쳐 담임목사와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추계 대심방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샬롯교협 새 회장에 정지호 목사

제12회 정기총회, 부회장 송성섭 목사

샬롯한인교회협의회 제 12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19일 샬롯드림교회(담임 정지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샬롯교협은 새 임원을 선출하고 임무를 인수인계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지호 목사 부회장 △송성섭 목사, 전태현 장로 △총무 김기영 목사 △서기 류인우 목사 △부서기 조재철 목사 △회계 이선운 장로 △협동총무 이현석 목사

〈기사제공: 샬롯교협〉

인/터/뷰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회장 장순직 목사

"바른 기독교 가치관으로 민족과 세계 복음화 이루길"

미주갈멜산기도원 조성근목사(좌)와 장순직목사(우)

최근 LA를 방문한 장순직 목사(예장 합동 부흥사회 증경회장, 원주 드림교회 담임,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회장)는 한민족들이 복음화 되어 우리민족뿐만 아니라 타민족들에게도 복음을 확장하는데 앞장서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를 섬기게 된 것도 우리민족의 복음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고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바람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장 목사는 민족복음화는 오래전부터 외쳐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다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민족복음화는 마치 박물관에나 가야 접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니까 그건 바로 교회에서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가치관의 차별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꼽았다. 번영신학과 성장주의에 물든 한국교회들이 강조했던 것은 부흥, 형통, 성공이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본받다보니 결국 세상은 교회를 만만하게 보게 되고, 교회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 발에 밟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교육이 잘못되었기에 맛 잃은 소금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빠져버린 기복주의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거든요. 진정한 복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이거든요. 그것을 가르칠 때 단 한명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결국 세상이 변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청운교회와 LA갈멜산기도원 집회, 그리고 남가주지역에 세워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재정비를 위해 방문한 장순직 목사는 미주집회를 다니다보면 미국교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제가 미주지역에 집회를 올 때마다 어떤 아픔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제결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가졌었고, 지금은 한인교회까지 집회사역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만 방문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분들이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장 목사는 이민교회의 아픔 때문인지 그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역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기도원사역에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LA갈멜산기도원 담임목사인 조성근 목사는 "장순직 목사님께서 저희 기도원을 방문하시고 집회 때 설교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스텝들과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원사역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 것은 기도원사역이 이민교회현장과 이민사회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상처 등에 대해 다가갈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장 목사는 기도원사역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도원하면 마치 예언하고 안수기도 받는 그런 곳으로 생각들을 하는 거 같아요. 아마도 예언, 안수 등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기도원을 하시는 것과 방송매체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주로 전달이 되어서 기도원하면 이러한 부분이 이미지화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새힘을 얻어 교회로 돌아가 충성된 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장 목사는 세계복음화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 중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를 보면 마치 됫박에 담겨진 날 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됫박에 담겨진 날 콩들은 많아 보이지만 쏟게 되면 흩어지게 되지요. 즉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들도 있어 보이고 뭔가 해낼 것 같지만 날콩 같아서 단절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고 신현균 목사가 초대 총재로 1978년에 발족한 단체이다. 한때 150만명이 집회에 동원이 될 정도로 한국교계에 영향력이 있던 단체였지만 현재는 회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다. 현재 조직을 재정비중이라 밝힌 장 목사는 해외집회 등을 제외하고는 매주 월요일 태백산 정상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이 시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민족복음화운동본부도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번영신학과 성장주의로 세상과 교회 차별 없어

"아픈 만큼 성숙..." 더 성숙한 한국 교회 기대

장순직목사는 드림교회 담임이다. 드림교회는 꿈이나 비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을 의미한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드림교회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일어선 교회로 호평이 나있다. 2011년 교회 건축 내장 마무리를 남겨둔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주의로 불씨가 옮겨 붙어 992㎡(300평)의 본당과 비전센터 일부가 불에 타고 말았다. 장목사는 "성전 완공을 위해 성도들이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는데 눈앞이 캄캄했다"고 회상하며 그날의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만감이 교차한 듯 했다.

드림교회는 화재조사 때문에 교회를 치우지도 못한 채 6개월간 잿더미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결단을 하고 성도들에게 "예배당을 짓는데 교회에 돈을 빌려주면 교회를 짓고 난 뒤 갚겠다"고 말했다. 성도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10억원의 돈이 계좌에 모였다. 이런 성도들의 헌신으로 2012년 4월, 새롭게 지어진 3306㎡(1000평)의 새 건물에서 입당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눈물바다가 되었었다고 회고하며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힘있는 크리스천이 되어 줄 것"을 강권했다.

〈박준호 기자〉

2001년 이후 북한 내 성경보급 급증

2011년 이후 탈북자 8.5% "북한서 성경본 적 있다

탈북자 중 성경을 본 사람이 2001년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윤여상)는 2007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9,742명과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탈북자 802명을 대상으로 북한종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2014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 9,349명 중 북한생활 당시 '성경을 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4.2%(338명)에 그쳤다. 이들 중 2000년까지 입국한 사람의 경우 성경을 본 비율이 0.5%로 전무한 수준에 가까웠다. 하지만 2001-2010년에는 3.7%,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8.5%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종교활동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9,174명 중 99.6%(9141명)가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종교 활동으로 체포될 경우 처벌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 8,726명 중 55.0%는 '정치범수용소행'이라고 답했다. 11.7%는 '교화소행'이라고 답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인 '노동단련형'을 받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북한주민들, 한국드라마 통해 기독교 접해"

RFA 자유아시아방송, 탈북자 증언 통해 밝혀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 교회의 모습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송된 탈북자 가운데 중국에서 성경을 배웠거나 한국 선교사와 접촉한 탈북자들은 특별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총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11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을 맞아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국가로 꼽은 나라는 북한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극심한 종교 박해 가운데서도 중국이나 북한에 여전히 지하교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살면서 방송에 출연한 한 탈북자는 15살 때 교회를 처음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올해 24살이다. 그는 방송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것은 정말 (성경 속에서) 점하나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말 유명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라며 "나는 진화론에 대해서 배워 처음에는 '띵'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고 자꾸 교육을 주니까, 또 촛불 켜놓고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귀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그가 지하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성경필사 때문이었다. 10장을 쓰면 북한돈으로 60원을 준다고 해 열심히 쓰면서 신앙을 갖게 됐다. 성경을 정식으로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필사를 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그는 친구들도 지하교회에 다니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한국드라마를 거의 다 보고, 화면에 나오는 십자가와 교회를 보면서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인정받는 일을 하고 돈도 많아서 보위부원에게 돈을 주면서 자식의 지하교회 출석을 적발되지 않도록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지하교인들은 잘못 걸리면 바로 정치범수용소나 총살을 당했다.

또 다른 탈북자 B씨는 중국 시안에서 성경통독사건으로 붙잡혀 북송된 다른 여성 탈북자와 같은 감방에 있으면서 겪었던 상황을 이야기했다. B씨는 "감방에 있던 그 여성은 정치범으로 분류돼 전혀 다른 곳으로 끌려갔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신을 먼저 죽여 달라고 애원하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다"고 회상했다.

북한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첫 번째 처형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바로 체제위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분석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며, 교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박해에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침 '침례교 부흥협력단' 본격 활동

농어촌·미자립 교회 자립 위해 발족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곽도희 목사)의 '침례교 부흥협력단'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부흥협력단은 침례교 소속 농어촌·미자립 교회의 자립을 위해 재정 및 목회 지원을 담당하는 총회 특별기구로 지난달 발족했다. 부흥협력단 단장인 강신정(논산한빛교회) 목사는 12일 "최근 두 차례 부흥협력단 준비 모임을 통해 사역의 방향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정했다"면서 "개교회와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침례교 부흥협력단의 협력위원들은 자립 교회 및 목회자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촌·미자립 교회 100곳의 목회자들에게 전도, 정착·양육, 멘토링, 특수목회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목회 노하우를 전수한다. 모금을 통해 일정한 재정 지원도 할 예정이다. 부흥협력단은 이를 위해 '2233 캠페인'도 펼친다. '매일 2시간 기도, 2시간 성경 연구, 3시간 전도를 1주일에 3번 이상 실천하자'는 뜻이다.

총회 교육부장인 최인수(공도중앙교회) 목사는 "교회 존립이 위태로운 농어촌·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최소한 목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며 부흥으로 이끄는 일이 부흥협력단의 주된 목적"이라며 "중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침 교단은 현재 3000개 소속 교회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67%인 2000개 교회가 농어촌·미자립 교회로 분류되고 있다.

애기봉 등탑 반대 교계 기자회견

교계 보수 진보 갈등 조짐

애기봉 등탑을 둘러싸고 교회내 보수 진보 간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14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애기봉 전쟁등탑 재건립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기총의 애기봉 등탑 재건립은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한 생각이며, 호전적 기독교라는 모습으로 선교에 방해되는 반 신앙적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경기도 김포의 애기봉 등탑은 본질적으로 성탄 트리가 아니고 애초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똑같은 등탑을 석탄일에는 연등탑이라고 부르고, 성탄일에는 성탄 트리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종교를 이용한 군사적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삐라살포와 등탑문제로 남북 간의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안전문제로 애기봉 등탑을 철거하여 전쟁 위협요소가 줄어드는 반가운 소식이 최근에 나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한 기총에서 다시 전쟁위협요소인 애기봉 등탑을 재건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개성교회 불기둥 "하나님의 응답?"

지난달 16일 북한 개성교회에 나타난 불기둥에 대해 천문 기상 및 대기과학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번개, 낙뢰의 일종이지만 사진처럼 강하고 굵은 빛줄기는 국내에서 흔하지 않다고 12일 말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여러 가닥의 번개가 집약된 '멀티 번개'로 보인다"며 "굵은 빛줄기 주변에 또 다른 번개들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땅이 넓은 나라에선 흔히 볼 수 있지만 국내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선 보기 드문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강봉석 경기도 군포 누리천문대장은 "보통 여름철에 발생하는 번개, 낙뢰와는 규모부터 크게 다르다. 국내에서 사진 등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장면"이라며 "이 정도의 섬광이라면 당시 근처에 있는 전자 기기들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기상청 통보관은 "번개는 전자와 전기의 불안정한 흐름으로 발생하지만 보통은 구름 속에서 방전돼 사라진다"며 "구름 속에서 생성된 번개가 사라지지 않고 땅에 연결되는 것이 낙뢰"라고 설명했다.

"동성애 옹호·조장 확산은 국가적 재앙 불러"

교계단체 등 2000여명 집회, 차별금지법시행국 피해 심각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산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동성애반대운동연대, 에스더기도운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샬롬선교회,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등 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대집회'를 열었다.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집회에서 주최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및 서울시민인권헌장 초안의 내용과 문제점, 기독교 신앙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며 법안과 인권헌장 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목사와 교회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설교나 교육을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며 "동성애자들의 결혼주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결혼장소로 예배당 사용도 금하지 못하게 된다"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부작용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먼저 시행된 세계 각국의 교회와 목사에게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교회는 쇠퇴일로에 접어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서울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인권헌장 초안에는 탈(脫) 가정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아동·성소수자 이주민의 안전보장(범죄방지), 사상의 자유, 특정 종교 강요 금지, 전통문화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운동을 전면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성애 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는 "목사님, 동성애자 결혼주례 하실 건가요"라고 반문한 뒤 "동성애 입법화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분명하게 동성애 입법화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BC PD수첩 '게이·레즈비언...' "동성애 옹호·조장"

교계·시민단체 시정 요구 의견서 전달

MBC PD수첩이 최근 '게이·레즈비언, 안녕들하십니까?' 편을 방영한 데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홀리라이프 등 20여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1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본사를 방문, '탈동성애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MBC PD수첩 때문에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동성애자들을 학대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불고 있으므로 한국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식 방송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흡연에 의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약 8배이고 동성애자들이 에이즈(AIDS)에 걸릴 확률은 비동성애자들의 약 178배"라며 "이토록 위험한 동성애의 실태에 대해서도 MBC PD수첩은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MBC가 앞으로도 동성애 옹호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시청 거부와 협찬사 불매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MBC에 전달된 의견서에는 동성애가 유전이나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논문 자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전파의 고위험군이라는 통계자료 등이 첨부됐다.

한국교회언론회도 13일 논평에서 "동성애는 여타 차별금지 대상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미풍양속, 윤리도덕, 성중독, 보건 등과 연계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데, 이를 '차별금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천부적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예닮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DKoreanchurch.com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303)-422-6950, Fax.(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느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토,주일)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열린)
Tel.(253)535-6207, 531-8424
Fax.(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젊은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az.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의 창 (20)

근대역사 속의 선교적 진앙지(1)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묶은 고목나무에서 새싹이 나올 수 있을까? 어렵다. 새싹은 새로운 토양에서 씨가 발아할 때 가능하다.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성령의 촛대는 늘 고착된 틀을 거부해왔다. 중세 천년의 암흑기에서 교회는 쇠락했다. 1517년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교회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그것의 핵심은 이신칭의, 만인제사장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보편성이다. 즉, 사제와 교회의 손에만 있던 말씀을 빼앗아 모든 이에게로 주어진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생명수와도 같이 성경의 진리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으로 교회는 또 다시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다. 일반적인 경향은 종교생활의 형식화, 교회화에 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었다. 소위 "사멸된 정통"의 종교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류의 중심지는 독일이었다. 이유인즉, 30년 전쟁과 자연신론(Deism), 계몽주위, 유물론 등의 근세 철학의 영향이 컸다. 따라서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경건주의(Pietism) 운동은 바로 스콜라적인 경향에서 결별해 나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과 감정의 중요시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평신도들 역시 신앙의 건설적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의 인물은 스페너로 시작하여 프랑케를 거쳐 진젠돌프 백작으로 이어졌다. 그 때와 영적인 정황이 유사한 오늘의 시대에 신적 통치를 향한 새로운 돌파구는 무엇인가?

스페너와 경건주의 운동

이 운동은 17세기 후반기부터 독일 루터파 교회를 배경으로 일어났다. 주창자는 스페너(Philip Jacab Spener, 1635-1705년)였다. 그는 어려서 신앙이 두터운 부모의 슬하에서 자랐다. 그는 스트라스버그 대학의 유학시절부터 경건한 생활에 힘쓰며 스승들의 영적인 감화를 크게 받았다. 그는 안드트(John Arndt)가 쓴 "진정한 기독교"를 읽고 크게 감화를 받았다. 이 책은 신학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교리논쟁에서 돌이켜 사랑과 교제를 힘쓰고 신앙고백에서 참 신앙생활로 돌아올 것을 권하고 있었다.

스페너는 후에 "경건한 열망(Pia Desideria)"이란 책을 집필하였다. 그는 이 책으로 일약 경건주의 창시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 책의 특색은 "경건 생활을 위한 성경연구, 교리적 논쟁의 회피, 회개와 인격적 신앙의 강조, 교회 안에 핵심체의 인정, 독립적 평신도 운동" 등이었다. 이 5가지 특색들 중 경건주의 운동이 교회사적으로 가장 공헌한 것이 있다면 평신도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사제 중심의 중세교회 제도에서 많은 개혁들이 있었으나 만인제사장 교리에 입각하여 평신도들이 교회발전에 참여하게 되는 운동이 뚜렷이 나타났다.

프랑케와 할레대학

스페너에 이어 경건주의 운동을 이끈 지도자는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년)였다. 그의 아버지는 법학박사였다. 그는 학구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1648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학생신분으로 안톤과 함께 '성서회'(Collegium Philobiblicum)를 만들어 성경연구와 기도운동을 일으켰다. 그 후 스페너의 부름을 받고 할레대학에서 교수 및 목회생활에 들어갔다. 이 할레대학의 유명한 점은 경건주의 운동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센터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 기독교는 아직 선교에 눈을 뜨지 못했다. 하지만 프랑케와 그의 동료들은 선교사명에 불타기 시작했다. 덴마크의 프레드릭IV세가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했을 때 자원자는 역시 프랑케의 제자들이었다. 18세기 어간에 적지 않게 60여명의 외국 선교사가 이 할레대학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렇듯 프랑케를 중심으로 한 할레대학은 독일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죽은 정통의 껍질을 벗고 살아있는 교회로 탈바꿈을 하는데 큰 활력소 역할을 했다. 이 할레대학은 창설된 지 반세기도 못되어 약 6,000명 이상의 목사를 배출하여 독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일꾼을 보냈다. 비록 할레대학을 본산으로 경건주의가 성행한 기간은 짧았으나 그로 인해 끼친 선교와 봉사정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진젠돌프 백작과 모라비아 교회

진젠돌프(Nicholas Ludwig Zinzendorf, 1700-1760) 백작은 할레대학의 사람이었다. 그는 10세부터 16세까지 할레(Halle)대학에 들어가 프랑케로부터 교육을 받았었다. 그는 이곳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과 순결한 영적 생활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는 학생시절 5명의 소년들과 함께 "겨자씨회(Order of the Grain of Mustard Seed)"라는 신앙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비밀스런 영적 집단으로서 그 구성원은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들 모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들의 교파에 관계없이 함께 모아 교제하며, 신앙문제로 고민하는 형제들을 도우며 미지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진젠돌프가 해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은 학생시절이었다.

진젠돌프는 대학시절 자기공부뿐만 아니라 대학 복음화 사역도 병행하였다. 그는 그 곳에서 신앙활동을 하며 계속 신학공부를 하기 원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반대로 빗텐베르그(Wittenburg)대학으로 옮겨 법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는 졸업 후 1721년에는 삭손 지방의 정부관리가 되었다. 이 무렵 보헤미아에서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당하여 망명해 있던 후스(John Huss, 1369-1415년) 일파가 모라비아(Moravia)에 있다가 다시 핍박이 시작되자 진센돌프 백작의 영토를 피신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모라비안 교회이다. 그는 Bohemian 형제단의 후계자들을 영접하여 자기 영지인 베델스돌프(Berthelsdorf)에 거하게 하였다.

그는 피난민 숫자가 300명이 넘자 "주님의 망대(Hernhut)"라는 신앙 공동체의 마을을 세우고 지도자가 되었다. 이 단체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일치였고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전폭적인 정신을 기울이는데 있었다. 진젠돌프 백작의 모라비아 교회는 선교에 힘썼고 서인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진젠돌프가 이끈 모라비안파는 수적으로 아주 극소수였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유산은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다. 요한 웨슬레(John Wesley)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전도자들이 그들의 열심과 비전에서 영감을 받아 헌신하였다.

적폐(積弊)란 누적된 폐단이다. 적폐의 끝은 막힘이며 사망으로 이어진 그러므로 선교의 초점은 적폐의 근원인 인간을 갱신하는데 있다.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근대사의 선교적 진원지를 살펴보았다. 사멸된 정통만을 고집했던 독일 교회는 한마디로 적폐로 귀착했다. 종교개혁의 발원지가 어느새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이에 스패너를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태동했고 그 영향은 프랑케와 할레대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진젠돌프와 모라비아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불일 듯 일어났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썩은 물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활화산처럼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야 한다. 그것은 흐름이며 유동성이다. 안정을 희구하고 폐쇄적인 게토를 형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한다. 골고다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으로 퍼져 나가듯 선교의 불길도 독일에서 시작하여 인근 나라도 점화되었다.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다. 이때에 근대역사 속의 선교 효시가 된 독일처럼 다시 한 번 영적 새 물결을 갈망해볼 수는 없을까?

방지일 칼럼 (65)

"본대로 들은 대로"

레갑의 장막이 그립다

유목민들은 집은 건축하지 않는다. 초장 따라 이동하니 자연스런 현상이다. 성경에 레갑 자손에 대한 명료한 기록이 있다. 저들은 조상의 유언대로 장막에 산다. 어디를 가도 초장만 있으면 거기 장막을 치고 양을 먹인다. 풀이 없어지면 다른 초장으로 옮긴다. 장막을 걷어가지고 옮겨 장막을 치면 된다. 사람의 삶이 장막에 살대 가게 마련이다.

우리 동포들이 전 지구촌 곳곳에 없는데 없이 그 생계를 위하여 여러 곳에 산재하며 산다. 우리 동포가 사는 곳에는 몇 가정이라도 함께 살면 거의 교회를 설립한다. 해외 한인교회가 6000에 달한다는 말을 듣는다. 호주에도 큰 도시인 시드니에 200여 교회가 있다 한다. 이번에 와서 주안교회 말을 들으니 7주년이 됐는데 호주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젊은이들이 몇 백이나 모여 동포 교회로 대형교회에 속한다. 전에 듣기엔 호주 교회를 산다는 말도 있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교회를 옮기려 하는데 그만한 인원이 수용될 수 있는 곳을 여러 곳 물색하며 알아보는 중 한 곳에 큰 공장이 났는데 한 주마다 2천불의 대여비가 든다는 것이고 한 곳은 그보다는 적은 액수이긴 하나 좀 불안한 것은 타 종교 더욱이 이슬람교가 있는 곳으로 기독교회를 불태운 때도 있는 곳이란다. 거기 가는 것을 그리 원치도 않는 교인들이 있다. 제직회를 했으니 일치를 보지 못하여 연기했다는 말을 들었다.

땅만 있으면 천막도 좋고 넓게 많은 인원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땅값은 대단한 곳이라 엄두도 못낸다. 한 주에 2천불이라면 한 달에 8천불 수치다. 딱하게 생각된다. 레갑 자손이 장막 생활할 때엔 초장이 문제일 뿐 어디가나 장막을 칠 수 있었다. 그런 때가 그립다. 당의 문제는 없음이다. 초장 좋은 곳이면 어디라도 장막을 칠 수 있다. 요즈음 땅값은 턱이 없다. 다 소유주가 있으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때가 그립다 함이다. 해외에 나온 교포들이 자기 노동력으로 근근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힘껏 유지하여 나간다. 선교열도 있다. 정성어린 헌금으로 나가는데 월 만불의 대여비는 교포 교회로서 너무 감당키 어렵다. 뿐만 아니라 헌금으로 이런 대여금에 매달린다. 도무지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되는 세상인가 생각이 되어진다. 월 만불이라도 지불하면서 장소 결정에만 의견을 모으고 있다니 그 옛날 내 발 가는 곳이 다 내 소유로 사용할 수 있던 그때가 그립다.

인류가 너무 많아져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오늘 내가 가는 곳이 내 살 땅으로 살던 그때가 그리워진다. 하나님 창조하신 지구촌을 사람에게 다 주신 바인데 오늘같이 편하고 살기 좋은 때 이건만 신앙생활 하려는데 이렇게 어렵다는데 착잡한 심정이 일게 된다. 사람이 금수만 못해지는가, 날개 치는 새들은 가는 곳마다 둥지 틀고 살면서 생식하고 있다. 산의 짐승들도 그 삶의 터전이 어디라도 적응하면 사는데 사람인 우리 만물의 영장은 그렇게 못되어진다.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이렇게도 어려울까 자못 무거운 심정이 든다. 드디어 월 만불의 대여비라도 지출하여 장소만을 택한다. 정성어린 성도들의 헌금이 이렇게 지출됨이 얼마나 아쉬운지. 좀 깊게 생각할 바이기도 하다. 선교사 몇 가정을 파송할 만한 액수이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산재한 우리 교포 교회의 예배드릴 장소 대여금을 합치면 엄청난 수치임을 미국서 이미 본 바이다. 한 큰 공간을 빌려서 시간대로 드리는 방안도 강구할 수는 없을까 현지 교회를 빌어 보는 교회가 절대 다수인데 이도 다 적지 않은 대여비를 지출함을 보았다.

무거운 지출을 하면서도 교포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니 그까짓 그 무거운 짐이 문제되지는 않는 듯하다.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 동포의 신앙의 힘이 크다 함을 또 감사하면서 보여지고 되어지는 실정한 토막을 적어본다.

〈2007년, 28권〉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야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어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2015. 2.16~2.26 -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 9 - 터어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2015. 3. 2~3.12 - 터어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14 - 터어키,그리스,로마3개국(12박13일) $3,199

〈※ 위의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록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0.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사역 가꾸기(4)

인도사역에서 세 번째 강의는 사역 가꾸기였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사60:22).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역자들에게는 절실한 구절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사역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과 사명 그리고 인격까지도 다 갖추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사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주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 땐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때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필자도 그토록 하고 싶었던 사모사역의 꿈을 갖고 미국에 왔지만 오히려 부풀었던 꿈은 절망으로 바뀌고 의욕조차 다 시들어가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마음조차도 그 어느 희망의 불빛도 모두 꺼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도 안타깝게 하고 싶었던 사모사역의 길이 모두 막혔을 때의 절망감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접었던 바로 그 날부터 시작된 사모사역은 이렇게 인도까지 퍼져 나갈 줄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강조합니다. 사역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그가 하라는 것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라고 할 때 가면 됩니다.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야학교에는 이해과목이 없습니다. 단지 순종과목만 있을 뿐입니다. 순종할 때 이해가 되고 순종할 때 사역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자주 탈 때마다 볼 수 있는 글자는 "on time"이라는 글자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발을 굴러도 on time에 빨간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수 없습니다. 그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on time에 불이 왔나?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급하고 하고 싶다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사역도 되는 것이 없을 때 즐겨부르던 복음송이 생각납니다.

"어둔 밤 지나면 새날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인생의 괴롬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밝아 오네/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되시니/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역의 길이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아 답답할 때마다 이 복음송을 부르노라면 막내딸은 엄마에게 달려와 이렇게 질문하곤 하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엔 언제 새날이 올 거야?" 그 때 막내딸아이의 나이 겨우 6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의 답답한 심정을 알아 차렸는지 이런 질문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응, 이제 곧 새날 올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새벽 동이 트기 바로직전이 가장 어둠이 짙은 것처럼 사역의 길이 열리기 바로 직전의 난관은 정말 숨쉬기조차도 힘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때 환한 빛을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탄식하며 부르짖던 기도의 내용을 다 듣고 기억해두신 하나님은 이제 on time에 불이 들어오고 나니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전 영국에서 사모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30년 전에 한국에서 고인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헤어진 지 30만에 영국에서 뜻밖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영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인도 선교를 함께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 분을 통해 인도 사역을 활짝 열기 시작하시더니, 동시에 어릴 때부터 가슴에 품어 오던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하나님을 향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싶은 것은 사람과 약속하신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더디 이루어지는 일일수록 감격과 감동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깊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인 것입니다. 이 감격을 함께 나누며 사역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사모들의 모습을 소개해 봅니다.

"주께서 사역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니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모님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나도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든 고난과 헌신과 수고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어려운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에 삶의 여유가 생겼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사역에 감사드립니다"(U사모).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사역에 대한 열정과 사명, 인격까지 갖춰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중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직전 난관은 숨쉬기조차 힘들어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십자가의 의미(요19:17-27)찬139장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서 그 의미를 찾아봅시다. 첫째, 잡혀 심문받으시고 판결을 받으신 주님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17-18). 수욕, 도전, 판결은 모두 성부의 허용으로 된 일임을 아신 주님은 자원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부의 기뻐 내주심과 성자의 즐거이 십자가를 택하심이 합력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기에 유일한 구속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흉내 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의 그림자였고 아사셀의 어린양도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부가 준비한 온전한 제물이기에, 그만이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구속생활의 본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자면 겸손한 복종, 자아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나라는 십자가 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갑시다.

화 구속의 완성(요19:30)찬44장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역사의 구심점인데도 본문은 불과 몇 마디 곧,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구속의 완성을 알리는 본 사건은 삼중적 완성을 나타냅니다. 첫째, 이는 성부의 구속계획을 완성함이고, 성경의 완성을 선포함이고, 하나님나라의 기초를 놓은 사건입니다. 둘째, 무엇의 완성입니까? 1)첫 아담의 모든 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처리하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저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첫 아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2)둘째 아담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신자는 새사람이고 새소망을 가지며 새생활을 살며 새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나라가 임하여 성령 안에서의, 평강, 희락을 누리며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세계를 완성하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누립시다.

수 대제사장적 기도(요17:1-8)찬214장

잡히시기 직전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이는 나사로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고 하신 것처럼 형식을 뛰어넘는 열린 기도입니다(1). 하나님과 즉시 교류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대제사장적 기도의 시작은 성부의 영광을 위한 성자의 간구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가졌던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문제가 평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기는 삶을 알게 됩니다(1-5). 셋째, 창세전 아버지가 가진 택한 자만의 구원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원과 정죄의 구분을 주님이 친히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택한 자만이 성자에게로 가서 그를 믿는 자로 나타나며 성자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장하십니다(6-8). 이 은혜를 주장하며 찬송합시다.

목 세상을 이기신 주님(요16:33)찬137장

본문 고별설교의 마지막은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경험할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담대히 살라는 당부로 마칩니다. 세상은 교회가 서야 할 자리이며 그리스도인이 잠시 일할 활동무대입니다. 일반은혜가 특별은혜의 무대인 것처럼 세상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일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은 마귀의 상용수단이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을 당하도록 돼있습니다. 무수한 까닭 없는 고난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끊어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1)담대할 수 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의 승리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주님 말씀으로 평강을 체험: 세상이 주는 평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폭풍가운데 주무시던 주님의 평강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금 의인(롬5:17)찬265장

로마서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 본 구절에 의인의 일생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구원이란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됨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른 자입니다. 그 의인만이 의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둘째,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이룬 공로를 받아들일 때 의인이 됩니다(롬10:9-10). 셋째, 의인은 믿음으로만 모든 삶에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인이 의인답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 붙어있기에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의인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일의 힘의 원천임을 압니다(요15:5). 의인의 길을 갑시다.

토 복음의 능력(롬1:1-7)찬 338장

사도가 아는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 영적 은사의 원천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11) 로마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 바울의 로마방문목적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포함된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장과 사역을 위해 필요합니다. 성령을 떠난 은혜란 없고 은혜를 떠난 은사란 없으며 은사를 떠난 사역이란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인 인격이 복음화 되고 가정이 복음화 되고 나아가 로마가 복음화 되는 순서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밖에서 안으로 일하지만 성령은 안에서 밖으로 일하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 성장과 사역의 열매는 연결돼있습니다. 셋째, 사도의 복음(유앙겔리온)은 1) 구원은 죄사함입니다(엡1:7). 2)죄 해결 받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3)그 복음은 성령의 은사의 지속적 공급원입니다. 복음을 즐기는 가장 행복한 자로 삽시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062)523-9419, Fax.(062)522-4834
500-170 광고광역시 북구 운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03)3208-8491~5, Fax.(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82)2-440-9000, Fax.(9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82)51-740-4500, 4556~8, Fax.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7 Jarvis Ave.,
Syosset, NY 1179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
Tel. (718)639-3021
Fax.(718)507-6376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형만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Tel. (303)422-6950
Fax.(303)422-6943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Tel.(323)466-1234
Fax. (323)466-0816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0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벧엘교회
3165 St. Johne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3521 Lomita Bl. #200
Torrance CA 90505
Tel.(310)749-0577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501 S. L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714)524-8800
Fax.(562)690-8044

샤롯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el. (818)952-244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Tel.(347)753-4551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 최창섭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Tel.(718)570-585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i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215)927-0643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효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516)277-1103
Cell.(917)922-05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